

석사학위논문

# 제주지역의 현대 벽화 연구

지도교수 김 용 환

제주대학교 교육대학원

미술교육전공

박 창 범

2002년 2월

# 제주지역의 현대 벽화 연구

지도교수 김 용 환

이 논문을 교육학 석사학위논문으로 제출함

2002년 월 일

제주대학교 교육대학원 미술교육전공

제출자 박 창 범

박창범의 교육학 석사학위 논문을 인준함

2002년 월 일

심사위원장 \_\_\_\_\_인

심 사 위 원 \_\_\_\_\_인

심 사 위 원 \_\_\_\_\_인

<초록>

## 제주지역의 현대 벽화 연구

박 창 범

제주대학교 교육대학원 미술교육전공

지도교수 김 용 환

현대 벽화는 잠시 반짝하다 사라져버리는 조형실험과는 전혀 다른 시대의 흐름이다. 대중 속에서 태어났고, 그 속에 든든한 뿌리를 내렸기 때문에 잡초처럼 강인한 생명력을 갖는다.

멕시코 혁명에서 출발하여 1930년대에는 뉴딜벽화, 60년대에는 미국을 중심으로 시작된 현대 벽화 운동은 현재까지도 끈질기게 이어지고 있으며, 지금은 전 세계로 퍼져나가 자리를 잡고 있다. 도시공간에 있어 현대 벽화는 시민의 정서적 안정과 도시미관을 개선한다는 입장에서 제작되기 시작되었고, 지금에 와서는 도시환경 디자인의 빼놓을 수 없는 분야가 되었다. 전문적인 화가가 그린 것으로부터 지역주민이 그린 소박한 것, 어린이들이 고사리손으로 즐겁게 그린 것 등에 이르기까지 수많은 벽화들이 세계의 구석구석, 거리의 모퉁이 모퉁이에서 꽃처럼 피고 지고 있다. 이 그림들은 비록 조형적인 면에서는 미술사에서 제대접을 받지 못할지라도 미술에 대한 부질없는 고정관념을 버리고 미술과 사회, 미술과 대중과의 관계를 다부지게 이어줬다는 점에서 중요하게 평가되어야 할 것이다.

벽화는 대중 속에서 존재한다. 개인이 제작한다고 하여도 벽화 자체가 이미 대중성, 공공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개인의 것이 될 수 없고, 따라서 이러한 공공적 성격을 올바르게 이해하지 않으면 벽화가 건강한 모습으로 정착될 수 없는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벽화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함께 다각적인 연구와 노력이 필요하다.

제주의 경우 이제 불과 몇 년의 역사를 지녔다할 만큼 초기단계를 크게 벗어나지는 못했지만, 관광지라는 특성으로 인하여 현재까지 많은 수의 벽화가 제작되었고 국제자유도시로 변화하는 지역적 과제로 인하여 향후 많은 수의 벽화가 제작될 전망이다. 그러나 아직까지

---

\* 본 논문은 2002년 2월 제주대학교 교육대학원 위원회에 제출된 교육학 석사학위 논문임

벽화제작에 있어서 환경미술과 공공미술, 그리고 지역적 특성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점이 많은 상황이다. 벽화를 단순한 벽장식이나 공간의 활용 차원에 머무르게 해서는 안된다. 벽화는 현대적 디자인의 집약된 모습을 보여주어야 하며 순수미술의 다양한 표출과 진솔한 참여미술이 어우러질 수 있는 종합적 환경미술이어야 한다.

본 논문은 이러한 현대 벽화의 의미와 중요성을 고찰하고 제주지역에 제작되어 있는 현대 벽화의 현황을 조사하는 한편 올바른 발전방향을 모색함으로써 향후 제작될 제주의 현대 벽화에 도움이 되고자 한다.

# 목 차

## <초 록>

I. 서론	1
II. 벽화의 개념과 역사적 고찰	4
1. 벽화의 의미	4
2. 서양미술에 나타난 벽화	6
3. 한국미술에 나타난 벽화	8
III. 현대 벽화의 전개 및 중요성	11
1. 현대 벽화의 전개	11
1) 멕시코	11
2) 미국	13
3) 프랑스	14
2. 현대 벽화의 중요성	16
IV. 제주지역의 현대 벽화 연구	19
1. 공공건물 벽화	20
2. 시내 담장 벽화	23
3. 광고 벽화	27
4. 학교 벽화	30
5. 아파트 벽화	33

6. 기타	37
1) 양어장 벽화	37
2) 방과제 · 정수장 벽화	40
3) 발전소 벽화	43
4) 신호등 · 가로등제어기 벽화	45
5) 공사장 벽화	47
V. 결론	49
참고문헌	52
abstract	54

## 그림목차

- 그림 1. <들소>, 알타미라 동굴벽화, BC 15000-20000, 스페인.
- 그림 2. <최후의 심판>, 미켈란젤로, 1534-1541, 바티칸 시스티나 성당.
- 그림 3. <수변의 수렵>, 이집트 분묘벽화, BC 1500년경, 런던 대영박물관.
- 그림 4. <꽃을 따는 플로라>  
폼페이 유적벽화, AD 40-63, 나폴리 국립박물관.
- 그림 5. <선한 목자>, 카타콤 천정벽화, AD 300년경, 로마 산 카리스트.
- 그림 6. <그리스도 예루살렘 입성>  
1072-1100, 이탈리아 캄파니아 성 안젤로 포르미스 성당.
- 그림 7. <백호도>  
고구려 고분벽화, 6-7세기, 평안남도 강서군 강서면 삼묘리.
- 그림 8. <서쪽 먼 벽화>  
고려 고분벽화, 박익의 묘, 2000년 발굴, 경남 고령.
- 그림 9. <대수렵도>, 1500년경, 제주도 제주시 관덕정.
- 그림 10. <혁명의 산책>, 디에고 리베라, 1928, 멕시코.
- 그림 11. <위대한 벽>, 부분, SPARC제작, 1976-1983, 로스엔젤레스.
- 그림 12. <잠수도>, 탐라미술인협회, 1994, 제주여객터미널.
- 그림 13. <잠수도>, 부분.
- 그림 14. <잠수도>, 부분.
- 그림 15. <탐라의 여명>, 탐라벽화·조형연구소, 1997, 제주시청.
- 그림 16. 제주시 시내담장.
- 그림 17. 제주시 상록회관 주차장 벽면.
- 그림 18. 서귀포시 중문 진모살 호텔 벽면.
- 그림 19. 서귀포시 이중섭거리 소재.
- 그림 20. 서귀포시 이중섭거리 소재.
- 그림 21. 서귀포시 서문로터리 전물미망인회 벽면.
- 그림 22. 서귀포시 서문로터리 남주주차장 벽면.
- 그림 23. 서귀포시 이중섭거리 소재.
- 그림 24. 서귀포시 이중섭거리 소재.
- 그림 25. 서귀포시 동문로터리 소재.
- 그림 26. 서귀포시 정방동사무소 벽면.

- 그림 27. 제주시 광양로터리 소재.
- 그림 28. 제주시 광양로터리 소재.
- 그림 29. 제주시 데이마트 벽면.
- 그림 30. 북제주군 한림읍 하나로마트 벽면.
- 그림 31. 제주시 공설운동장 인공암벽.
- 그림 32. 북제주군 민속마을농원 소재.
- 그림 33. 북제주군 한림공원 입구.
- 그림 34. 북제주군 안덕면 안덕계곡 입구.
- 그림 35. 북제주군 안덕면 송악산 입구.
- 그림 36. 북제주군 안덕면 송악산 입구, 부분.
- 그림 37. <해와 달>, 제주시 제주교육대학교.
- 그림 38. <민화>, 제주시 제주중학교.
- 그림 39. <십장생도>, 제주시 제일고등학교.
- 그림 40. <화합>, 북제주군 한림초등학교.
- 그림 41. 제주시 YMCA유치원 벽면.
- 그림 42. 제주시 화북 YMCA유치원 벽면.
- 그림 43. 제주시 노형초등학교.
- 그림 44. 제주시 연동 신시가지.
- 그림 45. <제주의 사계>, 제주시 연동 부영아파트 벽면.
- 그림 46. 제주시 화북 주공아파트.
- 그림 47. 제주시 월트컵아파트 벽면.
- 그림 48. 제주시 원신 아파트 벽면.
- 그림 49. 서귀포시 중문 일류리조트빌, 골드비치 호텔 벽면.
- 그림 50. 제주시 성환, 삼환, 성지아파트 벽면.
- 그림 51. 남제주군 온평리 해안도로 소재.
- 그림 52. 남제주군 온평리 해안도로 소재 친환경양식 모범업체.
- 그림 53. 남제주군 오조리 해안도로 소재.
- 그림 54. 남제주군 무릉리 해안도로 소재.
- 그림 55. 남제주군 표선면 해안도로 소재.
- 그림 56. 남제주군 온평리 해안도로 소재.
- 그림 57. 제주시 제주항 방파제.
- 그림 58. 제주시 동부두 방파제.
- 그림 59. 제주시 동부두 방파제.
- 그림 60. 서귀포시 중문 해수욕장.



- 그림 61. 제주시 삼양정수장 벽면.
- 그림 62. 제주시 동부두 LG정유.
- 그림 63. 제주시 일도지구 SK정유.
- 그림 64. 제주시 삼양 한국전력.
- 그림 65. 북제주군 한림 한국전력.
- 그림 66. 남제주군 화순 한국전력.
- 그림 67. 남제주군 화순 한국전력.
- 그림 68. 제주시 소재 신호등·가로등 제어기.
- 그림 69. 제주시 소재 신호등·가로등 제어기.
- 그림 70. 제주시 소재 신호등·가로등 제어기.
- 그림 71. 서귀포시 소재 신호등·가로등 제어기.
- 그림 72. 서귀포시 소재 신호등·가로등 제어기.
- 그림 73. 서귀포시 소재 신호등·가로등 제어기.
- 그림 74. 제주시 소재 신호등·가로등 제어기.
- 그림 75. 제주시 소재 신호등·가로등 제어기.
- 그림 76. 제주시 소재 공사현장 벽면.
- 그림 77. 제주시 목관아지 공사현장 벽면.
- 그림 78. 제주시 연동 신시가지 공사현장 벽면.
- 그림 79. 제주시 삼양 공사현장 벽면.

# I. 서론

인간 최초의 미술활동은 벽화이며 회화의 역사 중에서 상당부분이 벽화의 역사라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알타미라 벽화, 라스코 벽화 등 선사시대 동굴벽화에서 이집트의 고분벽화와 폼페이, 중세 교회의 벽화에 이르기까지 벽화의 주제, 형식과 내용은 그 시대의 문화에 따라 다양하게 변천되어 왔다.

그러나 18세기 산업혁명으로 자본주의 사회가 도래하면서 미술작품도 개인의 사유재산으로 이해되기 시작하였다. 이에 따라 이젤화가 성행하게 되었으며 대규모의 벽화미술은 거의 자취를 감추게 되었다. 이러한 역사를 비추어보며 벽화가 공공적인 성격의 미술로서 건강한 소임을 다했던 옛날에 대한 향수를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현대에 와서 도시화와 대중의 출현으로 미술의 공공적 성격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다시 강하게 대두되기 시작하면서 마침내 현대 벽화가 생겨나기 시작한다.

1970년 이후 우리나라도 고도의 경제 성장으로 인해 산업화와 도시화가 급속하게 진행되어 오면서 그것과 더불어 이른바 ‘대중사회’가 출현하게 되고 생활환경과 생활양식이 크게 바뀌면서 도시의 공간 혹은 거리가 중요한 생활장소로서 새롭게 검토해 봐야 할 대상이 되고 있다.<sup>2)</sup>

그러나 현실은 거리를 미적 체험을 할 수 있는 생활장소가 아니라 기능적인 면만을 강조해온 것이 사실이다. 즉 거리를 머무르는 장소이자 체험하는 대상으로서가 아니라 지나다니는 곳으로만 본 것이다. 따라서 ‘사람과 물건이 잘 빠져나가야 한다’는 기본적인 사실에만 주안점을 두었고, 거리의 환경이 가져다주는 인간의 정서적인 반응에 대한 배려가 거의 없었다.

---

2) 김윤수(1983), “환경·벽화·주민”, 「계간미술」 여름호, p.39.

...너무나 똑같아서 구별할 수 없는 고층 아파트들이 병영처럼 끝없이 줄지어 세워졌다. 이렇듯 똑같은 집들 사이에 난 도로들은 당연히 똑같은 형태를 이룰 수밖에 없었다. 이런 식의 단조로운 도로들이 부쩍부쩍 늘어났고, 어느덧 일직선으로 지평선에까지 뻗어 있었다. 그것은 질서의 황무지였다! 그리고 여기에 사는 인간의 삶의 형태도 이와 똑같이 흘러갔다...일직선으로 지평선까지!...3)

이렇게 미카일 엔데(Michael Ende)가 그의 소설 “모모”<sup>4)</sup>에서 묘사한 ‘음울한 회색도시’란 바로 오늘날 우리의 현실인 것이다. 이러한 현실 속에서 거리에서의 인간적인 반응을 유도·개선·자극하는 거리 속의 미술은 찾아보기 힘들다. 거기다 예술가들 역시 혼자만의 세계에 빠져서 획일화된 사회에 대한 미술의 필요성을 외면하고 있는 것이다. 이처럼 메말라 가는 현대 사회에서 “과연 미술은 어떻게 존재해야 하는가”라는 문제는 매우 근본적이고 중대한 물음이 아닐 수 없다. 그러므로 미술과 대중의 바람직한 관계라는 사회적 기능의 문제와 현대에 와서 미술 활동이 극히 제한적이고 충분하지 못한 것에 대한 반성과 더불어 미술의 올바른 존재방식을 추구하고자 하는 미술가들의 소리가 높아지면서 그 대안적인 방법으로서 벽화가 새롭게 주목받고 있다.

제주에서도 도시의 확장과 관광지라는 특수성으로 인하여 많은 수의 현대 벽화가 제작되었는데 대개의 경우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고 있으나, 작품의 질이 떨어지거나 주변환경과의 친화성이 고려되지 않은 경우도 많은 실정이다. 이러한 현실을 바탕으로 현대 벽화의 중요성을 재인식하고자 국내의 문헌을 참고로 하여 벽화의 의미와 역사적 중요성을 정립해 보았고, 현지답사를 통하여 제주지역의 현대 벽화를 연구하였다.

본 논문의 내용 전개에서 제Ⅱ장에서는 벽화의 의미 및 서양과 한국에 있어서의 벽화의 역사를 살펴봄으로써 현대 벽화의 존재과정을 검토해보고자 한다. Ⅲ장

---

3) 장소현(1984), 「거리의 미술」, 열화당, p.35.

4) 모모(MoMo) : 문명 사회의 테두리 안에 아직 발을 들여놓지 않은 인간, 현대인이 잃어버린 것을 여전히 풍부하게 지니고 있는 자연 그대로의 인간의 이야기를 다룬 소설.

에서는 멕시코, 미국, 프랑스를 중심으로 현대 벽화의 발생배경과 전개과정, 특히 현대 벽화의 중요성에 관해 고찰한다. IV장에서는 제주지역의 현대 벽화를 조사하고 문제점을 제기하고자 한다. V장에서는 제주의 지역성에 맞는 현대 벽화의 발전방향에 대하여 다각적인 방향으로 접근해보고 결론을 맺는다.

본 논문을 통하여 현대 벽화의 의미와 중요성을 고찰하고 현대 벽화의 활용방안을 모색함으로써 향후 진행될 제주지역의 현대 벽화 제작에 도움이 되고자 한다.

## Ⅱ. 벽화의 개념과 역사적 고찰

### 1. 벽화의 의미

벽화는 일반적으로 건축물의 벽이나 천장, 기둥의 표면에 그린 그림을 말한다. 일반 회화와는 달리 벽 표면의 본질적인 부분으로 남는 벽화는 그 자체의 특성뿐만 아니라 그것을 둘러싸고 있는 건축물이 부여하는 여러가지 형태에 의해서도 그 기법상의 제약을 받는다.

벽화는 건축물과의 유기적인 관계 속에서 그려지므로 그 자체로 독립적이지는 않지만 공간에 직접 개입하여 중요한 구조물의 하나로 자리를 차지한다. 이는 공허한 벽면을 장식하는 기능만이 아니라 건축의 여러 부분을 시각적으로 분절하고 서로 대조시키는 효과도 지녔기 때문이다.<sup>5)</sup>

벽화의 종류는 시대, 장소, 벽면의 성질, 종교, 기념 및 예술적 목적에 따라 다양하게 분류될 수 있는데, 벽과의 유기적 관계에 따라 조지(粗地)벽화, 화장지(化粧地)벽화, 첨부(添附)벽화로 크게 분류할 수 있다.

첫째, 조지벽화란 자연석 위에 덧칠을 하지 않은 채 직접 안료를 사용하여 그리는 방법으로 스페인에서 발견된 알타미라동굴의 천정에 그려진 실물크기의 채색화 <그림1>가 이에 속한다. 둘째, 화장지벽화란 묘사하고자 하는 면에다 바탕칠을 하고 그 위에 안료로 그리는 것으로 프레스코, 템페라가 여기에 속한다. 레오나르도 다 빈치(Leonardo da Vinci)의 「최후의 만찬」 <그림2> 등 르네상스 시대의 성당 내부의 작품을 들 수 있다. 셋째, 첨부벽화란 테라코타에 그린 그림을 벽면에 붙이는 방법과 캔버스에 유채로 그려서 그것을 벽면에 붙이는 방법이 있는데, 17세기 이후의 벽화에는 주로 캔버스를 사용하는 방법이 많이 쓰였다.

---

5) 김인환(1994), 「동·서 미술의 흐름」, 미술공론사, p.6.



〈그림1〉



〈그림2〉

벽화란 시각매체의 존재방식에 따른 분류에 의해 성립되는 용어이며 그 존재방식은 실내든 실외든 간에 벽면에 고정되어 대체적으로 대형화된 규모를 갖추고 그 형식은 선명한 색채와 분명한 선으로 단위별 형태가 클 수밖에 없는 특성을 지닌다.<sup>6)</sup>

이러한 벽화의 특성으로 말미암아 일반 회화처럼 가까이에서 시간을 투자하면서 감상하는 작품과는 다르게 우연히 지나치면서 편하게 시선을 유도하는 형식과 내용을 갖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러한 특성 때문에 벽화는 강렬한 울림, 장대한 충격, 일상의 정서를 격동의 세계로 이끄는 자극적인 환기장치를 지닌 ‘열린 그림’이며 따라서 제작의지를 가장 효과적으로 전달하고자 하는 시각매체 가운데 하나이다.

---

6) 「시각매체론」(1987), 서울; 우리마당, p.110. ; 김옥미(1991), “도시벽화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경희대학교 교육대학원. p.7에서 재인용.

## 2. 서양미술에 나타난 벽화

역사적으로 살펴보면 벽화는 시대에 따라 의미와 양식이 변천되어 왔다. 인류 회화의 기원인 구석기 시대 원시동굴 벽화 <그림1>는 생생한 자연주의적 묘사로, 이는 생존을 위한 주술적 도구였음을 보여준다. 예술은 현실과 분리된 것이 아니라 대상의 재현이자 소망의 표현이며 동시에 그 소망의 달성을 의미한다.<sup>7)</sup>



<그림3>

고대 이집트의 주요 미술장르 중에 하나였던 벽화 <그림3>는 대부분 분묘벽화로 현세에서의 생활상과 종교적인 테마로 그려졌다. “무덤 주인의 생전 모습을 전기로서 기록했다기보다는 현세에서의 영광이나 당시 사회가 공유하고 있는 행복의 전형을 나타냈다.”<sup>8)</sup>



<그림4>

폼페이의 수많은 건물에 그려진 벽화 <그림4>는 기법이나 감각에 있어서 상당한 수준의 것으로 당시 실내장식으로 벽화가 크게 성행했음을 추측하게 한다. 실내에 마치 정원이 있는 듯한 착각을 일으키는 눈속임 기법이 사용되고 있는데, 이것은 원근과 명암 등 회화적 표현이 뛰어나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다.

벽화미술은 중세에 와서 상당히 다양하게 활용되는데 초기 기독교 미술은 대부분 지하에서 비밀리에 종교의식이 이루어지면서 카타콤<sup>9)</sup>이라는 벽화미술을 탄생시킨다. 카타콤 벽화는 주로 구세주와 내세적인 삶에 대한 관심이 상징적으로 단순하게 표현되었다. <그림5> 6세기경의 비잔틴양식

7) A. 하우저(1993), 「문학과 예술의 사회사-고대·중세 편」, 백낙청 역, 창작과 비평, p.13.

8) 가와무라 기이치 편(1991), 「이집트 박물관」, 한국일보사, p.98.

9) 카타콤(Catacombe) : 초기 그리스도 교도의 지하묘지. 나폴리·시라쿠사·몰타·아프리카·소(小)아시아와 로마 근교에 많다. : 두산세계대백과사전.



〈그림5〉



〈그림6〉

의 벽화는 당시의 바실리카 건축양식에 근거하여 건축형태와의 유기성을 크게 고려한 스테인드글라스와 모자이크기법 같은 벽화양식을 발전시켰다.

11세기경의 로마네스크 벽화는 이탈리아 캄파니아 지방의 ‘성 안젤로 인 포르미스’ 성당에 그려진 <그리스도 예루살렘 입성> 〈그림6〉에서 보여주듯이 공간감이 없고 색채위주의 평면적 형식을 지닌 추상적인 양식으로 그려져 있다.<sup>10)</sup>

르네상스 미술이 나타나기 이전인 13세기부터 15세기까지에 나타난 고딕미술은 건축에서 출발하였기 때문에 벽화미술과 가장 밀접한 관계를 지닌 시기이고, 프레스코 화법보다 견고한 모자이크와 스테인드글라스가 고딕 회화의 주도적 양식이 되었다.

“중세의 회화세계는 프레스코, 스테인드글라스, 템페라 기법의 벽화미술을 정착 시키면서 새로운 회화세계를 눈뜨게 하는 출발점이 되었으며 르네상스 미술의 탄생에도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된다. 현재 남겨져 있는 각종 벽화미술도 표현적 방법의 기술은 대부분 르네상스시대에 완성이 되고 이것들이 현재까지 우리들에게 전해지고 있다.”<sup>11)</sup>

프레스코화의 전성기인 르네상스에 와서는 3차원적인 공간의 깊이를 나타내는 원근법으로 벽이 아닌 다른 공간이 실재하는 듯한 환상적인 느낌 〈그림2〉을 주며, 바로크시대에는 벽이나 천장이 거의 없는 듯한 시각적인 착시효과를 극대화시켰다.<sup>12)</sup>

10) 진영선(1998), “동과 서의 감성과 표현력의 만남”, 「조형논총」, 제 8집, p.186.

11) 김재관(1988), “벽화제작의 다양한 기법과 응용에 관한 연구”, 청예론집, 청주대학교, pp.91~92.

12) 김지희(2000), “한국 현대 벽화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고려대 교육대학원, p.5.



### 3. 한국미술에 나타난 벽화

서양에서의 벽화는 이미 3만여 년 전 동굴벽화에서 그 유래를 살펴볼 수 있는데 비해 한반도에서는 그 역사가 짧다. “신석기시대 말기에서 청동기 시대 사이에 제작된 것으로 보이는 경주 울주군 언양면 대곡리의 반구대에 새겨진 암각화와 같은 넓은 의미의 벽화양식이 등장한다.”<sup>13)</sup>

그러나 암각화는 회화보다는 조각에 가깝기 때문에 암각화를 벽화로 분류하는 것은 무리가 있으며, 채색안료를 써서 표현하는 진정한 의미의 벽화는 고구려 고분벽화에서 그 뿌리를 찾을 수 있다. “무덤의 구조와 벽화 주제에 따라 고분벽화의 제작시기를 전기(3세기 말-5세기 초)와 중기(5세기 중엽-6세기 초), 후기(6세기 중엽-7세기 중엽)로 나눈다. 전기와 중기의 고분벽화는 주로 프레스코 기법으로 제작되었으며, 후기에는 석면을 다듬고 그 위에 직접 그리는 조지화법으로 제작되었다. 안료는 자토(紫土), 황토(黃土) 등 광물질을 사용했으며, 갈색 계열과 흑색, 자색, 청색, 녹색 등이 주로 사용되었다.”<sup>14)</sup> 전기에는 중국 한대(漢代)의 영향을 받아서 생활 풍속이 주로 그려졌으나 후기로 오면서 인물이나 문양, 사신도와 같은 종교적인 색채를 띠면서 독자적인 발전을 이루었다.

한반도 북단과 중국의 동북지역에 걸쳐 광대한 영토를 유지했던 고구려는 대외적인 교류가 활발한 국가였다. 따라서, 고구려 고분벽화의 독창적인 특성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양식의 변천과 중국의 한(漢)족 문화뿐만 아니라 북조의 비한족 문화에 대한 이해가 선행되어야 한다.<sup>15)</sup> 동아시아에서 벽화의 출현시기는 고구려보다 빠른 전한대(BC 206-AD 9년)였으나 이 시기의 벽화는 사당에 그린 건물벽화였으며 고분벽화는 후한 대에 와서 나타났다. 고구려 고분 벽화가 한대 벽화의 영향에서 비롯되었음은 그림의 테크닉과 주제의 유사성을 통해 알 수 있다. 중국의 고분벽화는 전통적인 기술을 바탕으로 중앙아시아의 테크닉이 가미되어 자유분방한 표현양식을 구축하고, 이는 또한 고구려에 영향을 준다.

13) 김재관(1988), 전계서, pp.94~95.

14) 진호태(1994), “집안 고구려 고분벽화 개관”, 「고구려 특별대전」 전시도록, KBS 한국방송공사, p.21.

15) 권영필은 그의 저서 「실크로드 미술. 중앙 아시아에서 한국까지」에서 실크로드를 통해 교류되던 중앙 아시아와 한국의 문화교섭에 대해 비교, 연구하였다.



〈그림7〉

화 〈그림7〉에 나타나는 원경의 운산문, 쌍영총 벽화의 연화문, 장막의 주름에서 찾아 볼 수 있다.”<sup>16)</sup>

고구려 고분벽화는 멀리는 실크로드를 통하여 중앙 아시아와 가까이는 중국의 한대와 서로 영향을 주고받으며 다른 문화를 자국의 정서와 미감에 맞게 자기화하여 독자적인 양식을 형성하며 발전하였다.

고구려 이외에도 백제와 신라에서 벽화의 흔적을 찾아볼 수 있다. “백제의 경우 공주 송산리 석실분에 회칠을 했던 흔적이 있으나, 지금은 소실이 심하여 실제로 벽화가 제작되었는지는 알 길이 없다. 신라의 벽화로는 고령 벽화고분에 석회를 바르고 연화문을 그린 흔적이 남아있다.”<sup>17)</sup>



〈그림8〉

고려시대 고분벽화는 거창 둔마리 고분과 파주 서곡리 고분 등에 있으나 보존상태가 좋지 않다.

“하지만 2000년 9월 밀양에서 발견된 고려 말 학자 송은 박익(1332-1398)의 무덤 석실의 사방에 그려진 벽화는 채색이 선명하고 보존상태도 양호하다. 석실의 서쪽 면 벽화 〈그림8〉는 저고리와 치마를 입고 행차하는 귀족 여인들이 사실적으로 묘사되어 있으며, 동쪽 면 벽화는 남성 한 명이 포함된 인물행렬도가 그려져 있다.”<sup>18)</sup> 이외의 고려시대 벽화는 흙벽이나 나무벽, 돌벽으로 된 불교사원의 벽면에 직접 그려졌다.

16) 권영필(1997), 전계서, pp.141~159.

17) 진영선(1998), 전계서, p.183.

18) 김지희(2000), 전계서, P.29.



〈그림9〉

제주지역의 벽화로는 1500년경에 제작된 것으로 추정되는 관덕정 내에 있는 벽화 〈그림9〉를 들 수 있다. 관덕정의 대들보에 십장생, 적벽대장, 대수렵도 등 민화풍의 벽화 8점이 그려져 있다.

조선조 전기 이후로 자취를 감춘 벽화는 현대에 와서 소수의 몇몇 작가들에 의해 재현되고 계승되고 있다.<sup>19)</sup> 특히 고구려 고분벽화에 대한 새로운 관심이 높아지면서 내용이나 기법의 측면에서 현대적 조형언어로 바뀌고, 한국미술의 정체성이 부족하다는 반성의 목소리는 전통문화에 대한 적절한 자리 매김과 자생적인 한국회화의 탐구로 이어지고 있다.

---

19) 김지희(2000), 상계서, P.5.

### Ⅲ. 현대 벽화의 전개 및 중요성

#### 1. 현대 벽화의 전개

르네상스 시대에 번성했던 벽화미술은 16세기 이후 이젤화가 등장하면서 점차 쇠퇴하게 되었다. 특히 18세기 중반 영국에서 시작된 산업혁명에 따른 자본주의 사회가 도래하고 시민계급이 등장하면서 미술의 수요가 많아짐에 따라 이젤화의 전성시대가 도래하여 대규모의 벽화미술은 거의 자취를 감추게 되었다.

그러나 20세기에 접어들어 멕시코를 중심으로 벽화미술이 다시 등장하고 미국, 프랑스 등 세계 여러 나라로 확산되었는데, 그것은 산업화에 따른 도시의 성장과 벽화가 지닌 공공미술적 성격과 환경 및 소통으로서의 특성이 새롭게 부각되었기 때문이다.<sup>20)</sup>

오늘날의 벽화는 사회 현실과 정치적 상황, 도시 미관, 지역적 특성, 교육적 효과 등을 떠나서는 생각하기 어렵다. 왜냐하면 현대의 벽화는 도시 공간을 수놓고 있으며 한정된 실내 공간에서 벗어난 실외 환경의 공간, 즉 예술의 대중화와 그 소통의 중요한 한 형태이기 때문이다. “왜 벽화를 그리는 가는 말로 표현할 길이 없다. 그러나 거리에서 사람들을 만나고 인간경험의 풍부함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고 싶다. 벽화는 진정한 대중들의 삶과 경험에 대한 것이다.”<sup>21)</sup>라는 벽화가 짐 야나기사와(Jim Yanagisawa)의 말에서도 그 의미와 중요성을 확인할 수 있다.

---

20) 류인옥(2000), “Joan Miro의 벽화 연구”, 석사학위논문, 영남대 교육대학원, p.3.

21) 장소현(1984), 전계서, 열화당, p.45.

## 1) 멕시코

현대 벽화 발전의 효시는 멕시코에서 일어난 벽화운동에서 찾을 수 있다.

이 운동은 멕시코 혁명이 발발한 직후 디에고 리베라(Diego Rivera)<sup>22)</sup>를 중심으로 시작되었는데, 당시 멕시코 정부는 미술에 관한 지식을 필요로 하지 않으면서 모두가 즐길 수 있는 벽화를 생각했고 이런 연유에서 정부가 관리하



〈그림10〉

는 공공기관, 학교 등의 벽을 제공하고 그 벽화의 주제나 내용에 관해서는 전적으로 화가의 자유에 맡겼다.<sup>23)</sup> 그리하여 오로즈코(Orozco)와 시케이로스(Siqueiros)가 가담하면서 멕시코 벽화는 시작되었다.

이들은 자기문화의 정체성을 갖고 토착적인 유산을 반영하는 국민양식으로서의 벽화미술을 탐구하였으며 민중미술의 필요성을 자각하여 공공건물의 광대한 벽면에 혁명정신과 민중의 삶을 표현하였다. 〈그림10〉

리베라를 비롯한 멕시코 벽화가들의 작품은 멕시코의 사회환경에 적합한 것이었다. 문맹률이 90%에 가까웠고, 대부분의 국민들은 비참한 생활로 전시장을 찾는 일은 생각할 수도 없는 환경에서 민중들에게 있어 벽화는 그림으로 대화를 나누고, 민중의식을 높이며, 스페인 식민지 아래에서 생긴 악습을 씻어 건강한 민중의식과 시민의식을 계몽하는 긴급한 과제에 알맞은 도구로 활용되었다. 또한 벽화를 통해 그동안 천시되고 알려지지 않았던 고대 아즈텍, 마야문화를 재발견하고 위상을 드높임으로써 그들에게 정체성과 긍지를 갖게 하는데 큰 역할을 하였다.

22) 디에고 리베라(Diego Rivera) : 유년시절부터 뛰어난 미술적 재능을 인정받았고 유럽 유학시절에는 입체파(큐비즘)의 영향을 받았으나, 무엇보다도 이탈리아 르네상스의 대벽화에 가장 깊은 감명을 받고, 멕시코내란 종식과 함께 귀국하여 시케이로스 등과 미술가 협회를 결성, 활발한 벽화운동을 전개하였다. : 두산세계대백과사전.

23) 장 루이 페리에(1993), 「20세기 미술의 모험」, 김정화 역, 도서출판(주)에이피인터네셔널, p.849.

멕시코 벽화운동은 근대 유럽의 지배적 예술양식인 아카데미즘과 모더니즘을 극복하면서 독자적인 양식을 모색하고 발전시킨 좋은 예의 하나이고, 그것은 민족이라는 테두리에 갇힌 편협하고 국수적인 양식이 아니라 세계 미술사 속에서도 당당한 위치를 확보하고 있다는 데 큰 의미가 있다.<sup>24)</sup> 또한 고도의 정치적 내용을 담고 있으면서 풍부한 예술성을 잃지 않고 있다는 점에서도 주목할 만한 가치가 있으며 대중과의 소통을 겨냥한 공공미술이라는 점에도 의미가 있다.

리베라는 예술가의 역할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주장하고 있다.

예술은 생활의 직접적인 산물이다. 예술가는 그 시대의 열망을 전달, 반영, 수용, 응축하는 존재이다. ...우리들의 작품을 관람하기 위해 일부러 오는 사람을 의식하고 제작하지 않는다. 우리의 작품을 노동자나 민중이 볼 수 없다면 우린 전시를 거리, 작업장, 다방 같은 곳에서 열 것이다. 그리하여 도로와 공공장소가 미술전시장이 되도록 하자.<sup>25)</sup>

이러한 리베라의 노력은 벽화가 공공미술로서의 위치를 취득하게 하였으며, 현대 벽화에 대한 보다 적극적인 대중참여와 관심을 불러오게 하였다. 멕시코벽화는 이후 30년대의 미국의 뉴딜벽화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었으며 50년대 이후에 나타난 미국의 지역사회벽화와 유럽 환경벽화의 진전을 가져왔다.

## 2) 미국

미국 벽화의 경우, 1930년대 경제 공황기에 뉴딜정책의 일환으로 궁핍한 예술가들을 돕고 예술의 대중적 기반을 조성하려는 야심찬 국가계획에서 시작되었다. 공공사업촉진국에서는 화가들에게 공공사업의 일환으로서 공공건물의 벽면에 벽화를 의뢰했고, 당시의 화가들은 국가의 지원을 받으면서 누구라도 벽화 제작에 참여할 수 있었다.

---

24) 김영방(1988), “멕시코 벽화운동”, 「계간미술」 가을호, p.127.

25) David Shapiro, Social Realism, Crowell - Collier Press, New York. p.56. ; 이태호 (1980), “멕시코 벽화 운동 연구”, 석사학위논문, 홍익대학교 대학원, p.66에서 재인용.

광대한 미국의 지역 우체국이나 기차역, 학교 등에 그려진 벽화는 회화와 민중간의 교량역할을 하였으며, 그 때 대형 벽화 제작에서 얻은 경험들 - 큰 그림의 효과, 신체적 움직임, 부분이 갖는 추상 효과, 표면질감, 극적 대비와 대중성 등 - 이 제 2차대전 후 가장 미국적인 미술이라고 알려진 ‘추상 표현주의 미술’과 ‘팝아트’를 낳게 한 계기가 되었다.<sup>26)</sup>



〈그림11〉

그러나 진정한 의미에서의 미국의 벽화운동은 60년대에 들어 좀더 자생적으로 시작되었는데, 당시 사회구조의 모순에 눈뜬 화가들의 문제 의식에서부터 출발했다고 볼 수 있다. 60년대 미국은 극심한 사회환경의 변화와 가치관의 혼란기였기 때문에 예술도 새로운 정신과 다양한 형태로 거침없이 전개되었다.

월남전 참전에 따른 반전운동, 히피의 등장과 청소년들의 정신적 방황, 민권운동, 소수민족의 권리선언 등의 많은 혼란은 예술에 있어서도 기존질서에 대한 끊임없는 도전과 항의로 나타났다. 〈그림11〉

미국의 벽화는 60년대 극심한 사회환경의 변화와 더불어 기존 미술에 대한 혁명으로서의 의미를 지니기 때문에 문화혁명(文化革命)으로서 벽화의 의미를 인정받는다.<sup>27)</sup>

### 3) 프랑스

프랑스도 마찬가지로 화가들에게 있어서 벽화란, 미술계나 이에 관심을 갖는 한정된 사람들로만 구성되어 있는 범위를 벗어나 더 넓은 사람들을 상대로 하는 매우 드문 경우였다.

26) 류인옥(2000), 전계서, p.5.

27) 송승희(1999), “환경미술로서의 도시 벽화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제주대학교 교육대학원, p.22.

“1982년에 실시한 ‘화가들을 위한 벽’은 프랑스 문화 사상 처음으로 국토 전지역에 흩어져 있는 13개의 도시가 벽화 제작을 위한 최초의 캠페인을 벌이는데 합의했고, 이 캠페인은 ‘13명의 화가가 그린 13개 도시의 13개 벽화’라고 명명되었다. 따라서 예술적 환경 조성을 위한 협의회가 주관을 했고 문화성이 비용의 절반을 부담함으로써 가능했다.”<sup>28)</sup>

프랑스의 벽화 작업은 비록 그 내용상에 있어서 이상향적인 경향으로 치우친 점이 있긴 하지만 중요한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이는 미술을 과거 소수층의 독점에서 벗어나 공공의 소유로서의 미술을 다시 한번 확인해준 것이기 때문이다.

오늘날 프랑스가 벽화미술에 관심을 가지게 된 것은 몇몇 저명한 화가들의 선구적인 노력이 있었기 때문이다. 마티스(Matisse, 1869-1954), 레제(Leger, 1881-1955), 호앙 미로(Joan Miro, 1893-1983)가 바로 그들이다. 레제가 스위스 취리히시의 쿤스트 뮤지움에서 행한 “벽, 건축가 그리고 화가”라는 강연회는 많은 사람들의 주목을 끌었다. 그에 의하면 기계적이고 동적이며 또한 집단적이 되어버린 현대 사회에서 이젤 위에 놓고 그리는 전통적 그림은 예전에 갖던 중요성을 잃고 말았다는 것이다. 레제는 특히 건축가들이, 예술이 거리로 내려오게 할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인 다색으로 이루어진 미술품이나 장식물의 제작을 화가들에게 의뢰하지 않고 있다고 비난하고 있다. 그는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 현대 건축의 새로운 경향과 도시 중산층의 거주상태 사이에는 단절과 위태로운 진공상태가 놓여 있고, 최악의 반발을 일으키고 이를 계속 악화시킬 수 있는 도화선이 생겨 있습니다. 이 단절은 제거되어야 합니다. … 즉 벽, 건축가, 화가의 삼자간 공감대를 형성해야만 하는 겁니다. … 내가 알기로 목수는 철을 달구어 내는 일을 하지 않습니까? 도대체 무슨 권리로 여러분이 색깔을 직접 처리한단 말입니까!<sup>29)</sup>

이는 멕시코 벽화가들의 동기나 주장과는 전혀 다른 의미에서 현대 벽화의 존재의의, 즉 환경미술로서의 존재의의를 말해주고 있는 것이다.

---

28) 장 루이 페리에(1993), 전계서, p.776.

29) 장 루이 페리에(1993), 상계서, p.327.



## 2. 현대 벽화의 중요성

19세기 후반에 등장한 모더니즘은 순수 예술과 대중 예술의 거리를 더욱 벌려 놓았고, 모더니즘 예술가들은 대중적 취향을 저속한 것으로 보아 즐겁고 장식적이고 쾌락적인 요소를 모조리 기피하였다. 그들은 감성과 직관이 아니라 지성과 교양으로 그림을 그렸으며, 상당한 예술적 교양과 훈련을 쌓지 못한 일반 대중은 이들의 작품에 접근조차 할 수 없었다.

순수 예술가들은 자신의 특별한 권리로서 ‘예술을 위한 예술’을 내세웠고 이들은 예술이 사회를 반영하는 거울이 아니라 자기 목적적인 것이라고 생각했다. 화가는 현상의 충실한 묘사를 포기하고 색과 공간의 분석으로 나아갔다.<sup>30)</sup>

이러한 모더니즘의 편협한 시각으로 벽화가 시대를 초월해서 사회적으로 일정한 영향을 끼쳐 왔음에도 불구하고, 그 존재가치를 애써 축소하여 미술의 주변부 양식으로 격하시켜 왔다.

그러나 현대에 와서 순수 예술에 대한 대중적 수요를 확대해 나가자는 자각의 소리가 높아지고 있는데, 일반 대중이 순수 예술에 대중 예술만큼 손쉽게 다가갈 수 있는 없겠지만 적어도 현재의 협소한 기반은 확대할 수 있는 것이다.

1960년대를 기점으로 서구에서의 환경미술이 수도권과 지방에서 급격한 성과를 얻은 배경에는 여러 요인들이 있다. 이는 60년대 이후 모더니즘 미술의 쇠퇴와 함께 고개를 든 현대 미술의 대중적 기반과 이를 근거로 대두되었던 예술과 삶의 일치를 통한 소통의 회복 등의 흐름 때문이다. 또한 중심의 해체와 지방문화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면서 지역 공동체의 정체성을 표현하기 위한 의욕이 고취되었고, 장르간의 경계 구조와 시대 정신의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이다.

오늘날 도시는 정치·사회·경제·문화면에서 복잡한 이해관계로 맞물려 있을 뿐만 아니라, 물질문명이 가져다 준 심각한 환경의 문제, 정신적인 압박감, 세대 간·계층간 격차의 심화, 소외의 확산, 인간의 근본적인 삶의 가치를 위협하는 많은 문제들을 가지고 있다.<sup>31)</sup> 현대 벽화는 그것에 대한 하나의 반응, 하나의 대답

30) A. 하우저(1993), 전개서, p.21.

31) 박찬국 외(1995), 전개서, p.26.

이라고 볼 수 있으며, 그런 면에서 현대미술의 ‘미술관 미술’ 혹은 ‘내부의 미술’과는 뚜렷한 차이가 있다고 볼 수 있다.

현대 벽화의 존재이유는 다음과 같이 설명된다.

첫째, 벽화는 하나의 문화적 환경으로서 황폐한 도시 속에서 인간의 문화적 결핍을 채워줄 수 있는 사막의 오아시스 같은 역할을 한다.

벽화를 통해 대중과 지역사회의 구성원들에게 문화적 일체감을 형성해주고 삶의 질을 높이며, 예술 작품의 감상을 단순히 어떤 신기한 것들을 보여주기 위한 활동뿐만 아니라, 그것을 통하여 미적 즐거움과 심리적인 안정감을 제공하는 것이다.<sup>32)</sup> 즉 시민들에게 문화적 향수, 공유감 및 유대감을 가지게 한다.

둘째, 벽화는 야외 미술관의 역할을 대신함으로써, 일반인들이 난해하게 느끼는 현대미술에 익숙해지는 기회를 제공해 준다.<sup>33)</sup> 특히 서구 모더니즘의 병폐로 지적되고 있는 미술의 ‘고립주의’ 혹은 ‘미술의 소외’를 극복한다는 점에서 시사하는 바가 크다.

셋째, 벽화는 공공사업의 한 분야를 담당한다.

미국의 뉴딜벽화의 경우처럼 공공의 목적으로써 정부와 예술가와 관객의 삼각관계를 이으면서 국가 문화 정책의 목표 수행 및 개체 예술의 수준 향상을 도모한다는 것이다.

넷째, 벽화는 한 사회의 정체성과 문화의 긍지를 갖게 한다. 멕시코벽화운동에서 알 수 있듯이, 사회 구조와 밀접한 관계를 가지면서 사회의 여타 활동 즉 정치, 경제, 사회, 문화적 변화와 내용을 내포하고 있어 어떤 면에서 보면 강력한 힘을 가지기도 한다. 즉 미술이 사회발전에 긍정적인 기여를 할 수 있는 직접적인 방법이 된다.

다섯째, 박물관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다는 것이다.

하나의 축제의식으로서 동굴에 그려졌던 벽화는 죽은 이들이 사후생활을 낫설지 않게 하기 위해 무덤으로 옮겨갔으며, 그 후 성당이나 종교적인 의식을 행하는 장소에서 실내장식으로, 그리고 공공장소의 환경조형물로 설치되어졌다.<sup>34)</sup> 더 이

---

32) 류인옥(2000), 전계서, pp.7~8.

33) 조은정(1997), 전계서, p.72.

34) 김지희(2000), 전계서. p.9.

상 무덤에 그림을 그리지 않는 현대인은 박물관에 그림을 전시하게 되고, 그 전시실은 새로운 의미의 무덤이 된다. 하지만 벽화는 무덤을 깨고 나와 공공영역 안에서 대중과 상호작용을 하며 그 시대의 사회상을 반영한다.

마지막으로 벽화 미술은 작품의 내용과 의미를 대중에게 전달하고 그 가치를 이해시키는 교육적 역할을 한다.

벽화는 공공 장소를 이용하는 수천 수만의 대중들에게 전달되고, 누구에게나 친근해질 수 있는 좋은 방법이며 대중을 교육하고 그들에게 영감을 줄 수 있는 훌륭한 형식이다.<sup>35)</sup>

허버트 리드(Herbert Read)는 미술교육을 “미술에 관한 교육(education about art)이 아니라, 미술을 통한 교육(education through art)”<sup>36)</sup>이라 정의하면서 미술을 매개로한 감성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즉, 미술적 경험(표현 및 감상의 경험)을 통하여 창의성과 정서와 지식과 기능을 기르고 조화적인 인성을 기른다고 하여 거리의 미술인 벽화의 중요성을 지적하고 있다.

벽화는 원시시대의 동굴벽화로부터 중세의 종교벽화까지 미술사에 매우 중요한 몫을 차지하며 다양하게 전개되어 왔다. 상당히 많은 화가들이 기념비적인 벽화를 남기고 있는데, 그들은 모두 벽화가 지닌 중요성을 인식했기 때문이다.

프랑스의 미술평론가 장 까수(Jean Cassou)는 “현대 미술은 사대부의 예술이 아니다. 그것은 인간적인 예술이며, 사회적 예술이다.” 라고 말했는가 하면, 호앙미로는 “...내 생각에는 하찮은 목적을 제시할 뿐인 이젤화를 가능한 한 뛰어넘는 작품을 시도해보고 싶으며, 회화를 통해 내가 끊임없이 생각해 왔던 대중들에게 다가가고 싶다.” 라고 말했는데, 이 말들은 벽화의 중요성을 잘 뒷받침해주고 있다.

---

35) 장소현(1984), 전계서, p.129.

36) 허버트 리드(1981), 「미술의 역사」, 김윤수 역, 범조사, p.14.

## IV. 제주지역의 현대 벽화 연구

우리나라의 경우 현대 벽화는 70년대 말부터 미국의 현대 벽화를 조금씩 소개하면서부터 시작되어 80년대에 들어와서는 도시미관의 개선에 이바지한다는 목적으로 여기저기에서 부분적으로 시도되었다.

제주에는 88올림픽의 영향으로 80년대 후반부터 대형빌딩과 아파트 등에 슈퍼그래픽<sup>37)</sup>이 부분적으로 도입되기 시작하여 현재까지 크고 작은 규모로 많은 숫자의 벽화가 제작되었다. 제주는 관광지라는 특성과 다가올 국제자유도시의 건설로 인하여 향후 더 많은 벽화가 제작될 전망이다.

이 장에서는 제주의 현대 벽화들을 조사·분류하고 고찰하였다. 분류의 과정이 애매한 경우가 많았으나 여기에서는 편의상 제작된 장소, 성격, 목적에 따라 공공 건물, 시내 담장, 광고, 학교, 아파트, 양어장, 방파제, 발전소, 공사장, 제어기 벽화로 분류·고찰하였다. 실내에 제작된 벽화는 공공성과 환경에 미치는 영향력이 약하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 제외하였다.

벽화의 표현방식에 관한 사람들의 의견은 제각각 달라서 어떠한 대상을 사실적으로 표현한 벽화가 좋다는 의견과 추상적이지 못하면 수준이 낮다는 시각도 있다. 그러나 필자는 해묵은 미술계의 구상·추상의 우월 논쟁을 벽화로까지 가지고 오고 싶지는 않다. 따라서 여기에서는 벽화가 공공미술, 환경미술이라는 사실을 중시하여 그 점에 초점을 맞추어 기술하고자 한다.

---

37) 슈퍼그래픽(Supergraphics) : 기하학적 도형의 디자인 등 단순한 형태와 색채의 대형 미술을 뜻한다.

## 1. 공공건물 벽화



〈그림12〉

제주항 연안 여객터미널에는 바다를 배경으로 살아가는 제주여인의 진솔한 삶의 모습을 깊이 있게 표현한 ‘잠수도’가 그려져 있다.

‘잠수도’는 제주의 관문에 위치하고 있어서 제주를 찾은 관광객의 시선을 끌어 그들에게 제주의 대표적 이미지로 남게 되었다. 낡은 여객터미널의 이미지를 개선하는 환경개선의 효과와 더불어 관광객과 자라나는 세대들에게 제주 여인의 역사적인 삶을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기회를 제

공하는 정보전달 뿐만 아니라 교육의 역할도 훌륭히 수행하고 있다. 〈그림12, 13〉

‘잠수도’는 제주에서는 처음으로 제작되었던 대형벽화였다. 그 제작에 있어 벽화가 위치할 장소가 바닷가라는 최악의 조건이어서 보존의 가능여부가 가장 큰 과제였다. “그 과제해결을 위해 기존벽면의 유성페인트 제거, 계면활성제를 사용한 벽면 중화, 완전 건조 후 세척, 젯소 3-4회 도포, 고급 아크릴 작업, 작업 후의 코팅까지 탐라미술인협회 회원들은 엄청난 노력을 하였다. 그 결과 3-4년 정도의 예상 보존기간을 훨씬 뛰어넘어 1994년부터 약 8년 간 그 색상을 생생히 간직하고 있다.”<sup>38)</sup> 오히려 벽화 자체의 손상보다는 몇 백년을 간다는 콘크리트 벽면의 손상으로 인하여 벽화가 손상되어지는 안타까운 현실이다. 〈그림14〉 이와 같이 ‘잠수도’는 여러 가지 측면에서 벽화의 모범이 되고 있다. 〈그림14〉



〈그림14〉

38) 박경훈, 개인면담, 제주도 제주시 탐라벽화·조형연구소, 2002년 2월 21일.



〈그림 15〉

제주인의 개벽정신을 재조명하고, 아울러 고도 제주시를 문화도시로 가꾸어내며 밝고 활기찬 도시환경을 조성한다는 취지로 1997년 6월 제주시청 벽면에 벽화 ‘탐라의 여명’이 제작되었다. 시청 서쪽 2개의 벽면에 제주도 개국신화를 주제로 하여 음양오행(陰陽五行)적 해석으로, 좌측에는 양(陽), 남성, 천연적 자연의 모습을 표현하고 우측에는 음(陰), 여성, 문화를 표현하였다. 〈그림 15〉

시청은 시내 중심에 위치하고 있어 과거 어떤 벽화보다도 많은 시민이 이 벽화를 대하게 되었던 만큼 벽화에 대한 시민들의 의견이 분분하였다. 여기에 대해 김유정씨는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벽화는 대중의 입맛에 따라 작용한다. 하나의 기호품처럼 쉽게 만나기도 하고 어렵게 토론되기도 한다. 물론 대중의 취향이 계급·계층적인 맥락에 닿아 있는 만큼 모든 대중의 취향을 만족시킬 수는 없을 것이다. 특히 예술을 보는 눈은 바로 이 취향 이전의 미적 감각 능력에 따라 판단되기도 하지만, 사실상 교육받은 사실에 근거하여 경험적으로 판단하게 되고, 결과적으로는 개인의 미적 취향의 형태로 나타나게 되는 것이다. 제주시청사의 이 벽화는 이 취향의 계급·계층성을 잘 드러낸다. 제주의 씨족신화를 배경으로 한 ‘탐라의 여명’이 시청 벽에 그려지자 시민의 의견이 분분하였다. 우리식의 그림을 가지게 된 것을 기뻐하며, 우리 신화의 교육장으로 활용할 수 있겠다는 반응이 있는가 하면, 원색이 주는 강렬한 인상이 어딘가 모르게 미신적이라는 주장을 펼치며, 종교적 믿음으로 향의 방문까지 하는 반응도 있었다.<sup>39)</sup>

39) 김유정(2001), “도시벽화 ‘콘크리트여! 안녕’”, 「문화도시 문화복지」 112, 한국문화정책개발원, p.33.

이렇게 시청 벽화에 대해서 여러 의견이 나오는 것은, 벽화의 공공미술적 성격과 벽화의 소재가 대중과 친밀하지 않은 설화의 세계를 작가의 상상력으로 표현하였기 때문에 어찌면 당연한 일인지도 모른다.

시청벽화에서 잊지 말아야 할 점은 다른 시·도의 경우 공공기관의 건물에는 각 시·도의 홍보성 벽화가 많이 제작되는데 비하여 우리 제주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대규모 투자로 우리 제주인의 모습을 찾으려는 최초의 시도가 이루어졌다는 사실이다. 그러나 벽화제작에 있어 사전에 모니터, 설문, 공청회 등을 통하여 벽화의 주인이 되는 지역주민의 동의를 얻는 과정이 필요하다는 교훈을 남겨주고 있다. 이것은 벽화제작의 전 과정에 있어서 시민이 주도권을 가지고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자세가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며, 자치단체는 독단적이지 않은 민주적인 자세로 제작과정의 공개 및 여론수렴이 필요함을 말해주는 것이다.

## 2. 시내 담장 벽화

시내 곳곳에 위치한 주차장, 카센터, 도로에 인접한 주택 등의 경우 공간의 확보와 구분을 위하여 부득이하게 벽과 담장을 세우는 경우가 많은데, 그로 인해 주위의 건물벽면이 그대로 드러나 있는 경우가 많다. 더 문제가 되는 것은 주거공간 밖이라는 이유로 도색이나 기타 미관을 위한 건물주의 노력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아 극히 삭막해 보인다는 것이다. <그림16> <그림16>



이러한 경우 삭막한 벽, 담장, 인접 벽면에 도시환경의 미적 개선을 이유로 지방자치단체의 노력과 개인의 의지를 통해 소규모이긴 하지만 많은 수의 벽화가 그려지고 있다. 이러한 벽화들은 규모가 작고 비교적 적은 경비로 제작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인간 중심의 미적 요소를 확대하고 쾌적한 생활공간이 되도록 미적 환경 조성에 일익을 담당한다는 측면에서 그 효과가 대단히 크다.



<그림17>

이 벽화 <그림17>는 제주대학교 미술학과 재학생들이 자발적으로 제주시 소재 상록회관 주차장 벽면에 그린 것이다. 제주의 대표적인 상징인 향아리, 노루, 초가, 오름, 일출봉의 모습에 유머러스한 인물의 모습을 더하여 친근하게 표현하였다. 시내 중심의 좋은 위치에 그려진 이 벽화는 관광지 중심의 제주 자연에 익숙한 시민과 관광객에게 또 다른 제주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특히 도안적인 이미지와 사실적인 이미지의 조화라는 신선한 시도가 성공한 사례라 하겠다.





〈그림18〉



〈그림19〉

서귀포 중문동 소재의 대로변에 위치한 벽화 〈그림18〉는 건물 주인의 서투른 손으로 중문 진모살 해안의 모습을 직접 그려 넣은 것이다. 색채 사용이나 형태표현 등 회화적 기법은 미숙하지만 자신의 거주지를 직접 아름답게 꾸몄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더욱이 앞의 유채밭과 잘 어우러져 주로 차량으로 이동하는 관광객에게 제주의 아름다운 모습을 홍보하는 효과를 주고 있다.

서귀포에 위치한 이중섭거리 주변의 벽화 〈그림19〉는 보통의 벽화와는 다르게 안료를 사용하여 채색하지 않고 부서진 타일조각을 이용해서 제주의 이미지를 표현하고 있어 시민들에게 벽화의 색다른 매력을 선물하고 있다. 이 벽화는 벽화의 문제점인 보존의 문제를 훌륭히 해결하고 있으며 전체적으로 안정적인 구도와 차별한 색채, 매끄러운 그라데이션<sup>40)</sup> 처리로 모자이크 벽화가 주는 특유의 직선적인 딱딱함과 단순함도 해소하고 있다. 이는 향후 대형 벽화 제작에 충분히 도입 가능한 방법으로 예상된다.



〈그림20〉

경우에 따라서는 작은 벽화가 대형간판보다도 그 거리의 특성을 잘 나타내 주며, 또한 도시미관을 아름답게 만들어줄 수 있다. 서귀포 이중섭거리의 벽화들 〈그

40) 그라데이션(Gradation) : 단계적으로 일관성 있게 변화를 주는 방법으로 진한 색채로부터 차차 흐리게 그림을 그리는 법을 뜻한다.

림20〉은 이중섭의 작품을 크게 확대하여 표현함으로써 애써 설명하지 않더라도 이곳이 이중섭거리임을 명확하게 알려주고 있다. 하지만 이중섭거리라고 해서 그의 그림을 그대로 확대하여 여기저기에 그린 점은 아쉬우며 같은 그림이라도 표현방식을 달리하여 색다른 느낌을 살려 표현하였다면 더욱더 좋았을 것이다. 또한 이중섭이라는 개인만을 알게 하는 거리가 아니라 ‘예술의 거리’라는 점을 부각시키기 위해 다양한 그림들도 함께 그렸다면 좀더 의미 있는 벽화가 되었을 것이다.



〈그림21〉

향토적인 소재를 사용하려는 노력의 일환으로 제주의 상징인 돌하르방이 빈번히 벽화의 소재로 등장한다. 돌하르방은 지역주민과 관광객에게 매우 익숙한 소재라 작가는 그 표현에 있어 고심하지 않을 수 없다. 서귀포 서문로터리 부근의 벽화 〈그림21〉는 그 아이디어와 표현이 신선하다. 〈그림21〉의 오른쪽 그림의 경우 돌로 만들어져 무겁고 딱딱한 이미지의 돌하르방을 귀여운 아이의 모습과 함께 그려 귀엽고 부드러운 또다른 돌하르방의 이미지를 보여주고 있다. 돌하르방의 이미지에 꽃의 모습을 더하여 표현한 〈그림21〉의 왼쪽 그림은 아이디어가 신선하며 묘사가 뛰어난 작품이다.



〈그림22〉

이와 반대로, 인근에 위치한 벽화 〈그림22〉는 꽃이라는 아름다운 대상을 소재로 사용하기는 하였으나, 국적불명의 인물표현으로 위와는 다르게 친근한 느낌보

다는 어색한 느낌을 준다. 이를 통해 우리는 작은 벽화라도 제주의 지역성과 잘 맞을 때 비로소 지역주민들의 호응을 얻을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림23〉

제주의 지역성에 맞는 수준 있는 벽화를 제작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소재 및 소재의 느낌을 충분히 전달할 수 있는 표현방식이 요구된다. 서귀포 소재

이중섭거리 주변의 두 벽화 〈그림23〉는 제주여인네의 모습을 표현하기는 하였으나, 색채와 인물묘사의 미비로 인하여 오히려 눈에 거슬리는 시각적 공해가 되고 있으며 교육적으로도 악영향을 끼치고 있다. 서귀포시가 이중섭거리를 예술의 거리로 탈바꿈한다는 취지로 많은 수의 벽화를 제작한 점은 칭찬할 수 있겠으나, 작가의 선정과 하나의 거리에 있는 각각의 벽화가 가지는 전체적인 조화의 미숙함으로 인해 향후 수정·보완되어야 할 점이 많은 실정이다.



〈그림24〉



〈그림25〉

이 밖의 벽화로서는 주로 제주의 자연을 사실 그대로 묘사한 작품이 많은데, 서귀포 시내에 위치한 이 벽화 〈그림24〉의 경우 비교적 안정된 구도와 밝은 색채로 주위 환경을 밝게 만들어 주고 있으나, 대다수 〈그림25, 26〉의 경우 그다지 좋은 효과를 주지 못하는 실정이다.



〈그림26〉

제주의 시내 담장에 제작된 벽화의 대다수는 제주의 자연과 관광지를 소재로 제작되어 있다. 그러나 아무런 여과 과정 없이 자연과 관광지의 모습만을 나열하는 것은 일차적이고 즉각적인 메시지 전달은 가능할지라도 시간이 지날수록 식상

해질 수밖에 없다. 따라서 향후 제작될 벽화는 보다 다양하고 참신한 내용 및 표현방식이 이뤄져야 할 것이다. 다시 말해서 작품의 내용이 그 공간을 향유할 사람들의 보편적인 정서에 부응토록 하기 위해 벽화가 위치한 지역이나 거리의 문화적 배경을 동시에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를테면 제주인들이 일상에서 자연스럽게 느낄 수 있는 형상과 특히 국제도시로서의 위상을 높일 수 있는 표현방식과 내용으로 채워져야 한다는 것이다.

### 3. 광고 벽화



〈그림27〉

근래 제주에서도 변화하는 세계의 모습에 따른 필수적인 정보의 양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으며, 정보에 대한 의존도는 일상을 좌우할 만큼 중요한 요소가 되었다. 거리에 붙은 광고간판은 정보전달의 방법에 있어 다수의 시민들에게 동시에 전달될 수 있고 외부에 노출되어 접근성이 용이하기 때문에 광고매체로서 좋은 대상이 될 수 있다. 그러나 경쟁적으로 설치한 간판으로 인해 제주지역도 어디를 가나 간판의 숲이 되었고 이런 간판의 증가는 시민들이 간판을 통해 자극을 얻기는 커녕 일종의 불감증을 유발해 모든 것을 다 읽지 않는 결과와 도시환경을 어지럽게 만드는 결과를 초래했다. 〈그림27〉 이러한 간판의 악영향을 해소하기 위하여 벽화를 도입하면 좋은 효과를 얻을 수 있다. 제주시 광양로터리에 위치한 삼성생명의 광고간판 〈그림28〉은 단순한 글씨가 아닌 해와 달, 별의 모습을 표현하여 훨씬 부드럽고 친근하게 시민들에게 보험회사의 이미지를 홍보하고 있으며, 도시의 환경개선에도 기여하고 있다.



〈그림28〉



〈그림29〉

제주에서는 몇 년 전부터 도시의 팽창, 생활의 편리 등의 이유로 대규모 마트가 등장하였다. 마트는 창고형 건물의 특성상 넓은 철제 벽면과 단순한 사각형의 건물모양이 대부분이라 딱딱해 보이고 삭막해 보이는 경우가 많은 것이 사실이다. 신제주에 위치한 데이마트는 건물 전면에 푸른 생선과 싱싱한 녹색의 야채를 단순한 이미지와 밝은 색으로 표현한 벽화 〈그림29〉를 도입하여 건물의 용도를 한

눈에 알아볼 수 있게 하였고, 신선하고 따뜻한 느낌으로 소비자에게 다가서고 있다. 한림에 위치한 하나로마트 역시 차가운 이미지의 벽에 땀 흘려 추수하는 농부의 모습과 소비자의 모습을 연결한 그림 <그림30> 으로 주민들에게 친근하게 다가가고 있다. 이러한 벽화는 시골장터에 익숙해 있던 지역주민들에게 마트의 이미지를 친



<그림30>

근하게 만들고, 마트라는 새로운 문화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를 지우는데 도움을 주고 있다.



<그림31>

제주시 공설운동장에 세워진 인공암벽은 그 형태자체가 역삼각형이라 불안정한 느낌이었으나 벽면에 천연암벽의 이미지와 도전하는 젊음의 모습을 벽화 <그림31> 로 표현함으로써 훨씬 자연스럽고 안정된 느낌을 주며, 공설운동장 내에 있는 콘크리트로 만들어진 경기장들의 삭막함을 지우는데 한 몫을 하고 있다.

제주에는 관광지라는 특성으로 인하여 각 관광지와 위락시설에 홍보성 벽화가 몇몇 제작되었다. 이러한 경우 도심지와는 다르게 대형 입간판의 형태를 띠게되며 아름다운 자연 속에 위치하므로 특히 자연친화적인 벽화제작이 요구된다.



<그림32>



<그림33>

동부산업도로변에 위치한 민속마을농원에는 특산물을 큰 글씨로 표시하던 종래의 간판대신 각 제주의 자연을 배경으로 특산물을 회화적으로 표현하여 오가는

사람들에게 한층 친숙하게 다가가고 있다. <그림32> 무분별한 간판이 우후죽순처럼 세워지고 있는 제주의 관광지에 좋은 예가 되고 있다.

한림에 위치한 한림공원에는 비양도, 해수욕장 등 나름대로 주변환경과의 조화를 고려한 대형 광고 벽화 <그림33>가 세워져 있어 공원을 홍보하는 효과를 충분히 거두고 있다. 그러나 지나치게 이국적인 색채와 소재로 인해 지역주민들과 관광객에게 정확한 정보전달의 책임을 다하지 못하고 있는게 사실이다.



<그림34>



<그림35>

안덕계곡 입구에 있는 벽화 <그림34>는 한라산, 산방산, 굴나무, 용 등 제주와 제주의 신화를 소재로 신비스럽게 그린 대형 구조물로 세워져 있으나, 아름다운 제주 자연의 모습을 가로막고 있다는 위치선정의 잘못과 색채의 조약함 및 조형성 부족 등의 이유로 오히려 그 자리에 없는 것만 못한 시각적 공해가 되고 있다. 이와 비슷한 경우는 안덕면 사계리의 송악산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그림35, 36> 그림 자체만으로는 여러 가지 평가가 내려질 수 있을 것이나 주변경관과 전혀 어울리지 않는 이러한 국적불명의 대형 광고 벽화들은 제주의 향토성을 희석시키고, 아름다운 제주의 자연에 먹칠을 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는 것이다.



<그림36>

제주를 삶의 터전으로 살아가는 제주인과 이 곳을 찾은 관광객들에게는 제주의 자연이 주는 아름다움을 누리며 그 속에서 건강하게 살아갈 권리가 있다. 장소를 초월한 광고의 홍수 속에서 제주의 아름다움을 지키기 위해서는 이러한 광고 벽화가 제주의 자연과 유기적인 질서를 갖도록 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광고주뿐만 아니라 자치단체와 시민들의 올바른 의식과 관심이 필요할 것이다.

## 4. 학교 벽화

현재 제주도 학교건물의 대부분은 예산부족과 부실공사 등의 이유로 허술하게 지어져 있고 최근에 지어진 일부 학교를 제외하고는 그 모양도 대부분 유사하여 단조롭거나 삭막해 보이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러한 학교건물의 열악한 환경에 벽화를 도입하는 것은 학생들의 정서에 많은 도움을 줄 수 있다.

제주교육대학교 부설 초등학교에 그려져 있는 벽화 <그림37>는 그러한 점을 어느 정도 반영하고 있다고 하겠다. 이 벽화는 전래동화인 ‘해와 달’을 민화풍으로 그려내고 있는데 교육대학교 총학생회가 채택하여 여



<그림37>

러 학생들의 도움으로 완성된 작품이다. 그림의 내용이나 테크닉은 소박하지만 과거 거처럼 위인의 생을 시멘트 부조로 제작한다거나 그냥 밋밋하게 벽으로 놔두는 것보다는 아이들의 정서발달에 더 많은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뿐만 아니라 이러한 벽화가 50미터나 되는 지루한 벽면을 생동감 있게 만들었고, 초등학교 예비교사들의 아동들에 대한 애정이 바탕이 되어 그려졌다는 사실에 의미를 찾을 수 있다.



<그림38>

제주중학교 벽면에는 신, 의, 예, 효, 충이라는 단어를 해학적으로 표현한 민화풍의 그림과 단원 김홍도의 풍속화를 확대한 그림 <그림38>이 나란히 그려져 있다.



이러한 전통적인 그림은 날로 서구화되어 가고 있는 우리 학생들에게 조상의 숨결을 느낄 수 있는 조그마한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또한 이웃해 있는 제주향교의 이미지와도 잘 어울려서 학생들과 시민들에게 조상의 해학적인 즐거움을 선사하고 있다. 벽화가 주변환경과 밀접한 조화를 이루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는 한 예이다.



〈그림39〉

제주제일고등학교에는 십장생도를 비례대로 크게 확대하여 학생들 공동작업으로 표현한 벽화 〈그림39〉가 있다. 이 그림은 학교미화의 효과와 더불어 미술책보다 더 명확하게 십장생의 의미와 소재들을 전달하고 있으며, 입시에 지친 학생들에게 한국적인 색채가 주는 화려한 느낌을 생생하게 체험할 수 있는 미적 체험의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그림40〉

학생들에 의한 공동벽화의 또 다른 예로는 북제주군 소재 한림초등학교에서도 찾을 수 있다. 세계의 모든 사람들과 자연이 손에 손을 잡고 화합하는 모습을 초등학교 학생들이 방과후를 이용해 고사리 같은 손으로 100여미터의 기다란 담장에 표현하였다. 〈그림40〉 아이들 각자의 개성에 맞추어 가지각색의 인종과 자연 등 모든 사물이 하나됨을 표현하게 한 것은 그 의도가 매우 교육적이며, 미술실기 대회의 지나친 남용 등으로 미술에 대해 잘못 이해하기 쉬운 아동들에게 색다른 미적 체험을 가능하게 한 것이다.



〈그림41〉

제주 YMCA에 그려진 벽화 〈그림41〉는 시골아이들이 뛰노는 모습을 표현하였는데, 콘크리트를 배경으로 자라난 현대의 아이들에게 자연의 느낌을 소박하게 전달해 주고 있다. 색채와 구성이 뛰어난 작품이며, 재료로 사용된 아크릴이 주는 깊이 있는 색채의 특성을 잘 나타내고 있다.



〈그림42〉

이밖에 화북 YMCA와 노형초등학교에 그려진 벽화 〈그림42, 43〉는 도로변에 위치한 학교담장의 이미지를 한층 부드럽게 만들고 있으며, 자라나는 아이들의 눈높이에 맞는 친근한 소재를 사용함으로써 그들의 정서를 순화시키는데 도움을 주고 있다.



〈그림43〉

학교에 그려지는 벽화는 학교건물의 외적환경을 개선하는 목적뿐만이 아니라 교육적 환경조성을 위하여 교육적이고 심미적인 내용을 실어야 할 것이다. 또한 벽화의 효용성을 높이기 위해 제주의 지역적 특성과 학교 특성에 맞는 적절한 표현이 요구된다.

특히 벽화를 학생들에게 공동으로 제작하게 하는 것은 미적 정서와 협동심을 길러주며 나아가 사회성을 기르는 중요한 교육적 효과를 가져온다. 이와 같이 학생들에 의해 그려지는 벽화는 널리 확산됨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인다.

## 5. 아파트 벽화

도시의 발달로 주거공간이 확대되었고 제주에도 90년대 이후 도시 주변으로 많은 아파트가 들어섰다. 아파트는 외부형태의 단조로움으로 인해 시각적 혼돈을 야기하고 회색조의 거대한 콘크리트 구조물은 삭막함마저 느끼게 한다. <그림44>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아파트 건축에 있어 나름대로 색채와 그래픽을 도입하는 경향이 많아지고 있다.



<그림44>

아파트 벽화 도입의 필요성에 대해 김유정씨는 저서 「도시벽화 '콘크리트여! 안녕」에서 “시각적으로 동질감을 줄 수 있는 따뜻한 벽화를 바라보는 즐거움은 정서적으로 전통 촌락적인 동류의식을 만든다는 차원에서 생각하면, 아파트의 벽화는 시도할 만한 가치가 있는 것이다.”고 말하고 있다. 이렇듯 아파트의 벽화는 날로 규격화, 개인주의화 되어 가는 우리 사회의 현실에서 문화적 향수와 유대감을 가지게 한다.



<그림45>

신제주 연동택지지구 부영아파트 벽면에는 제주의 4계절을 주제로 제주의 자연을 사실적으로 표현한 대형벽화 ‘제주의 풍경’ <그림45> 이 제작되어 이 곳에 거주하는 시민들에게 아파트의 식별성을 높이고 자연 친화적인 생활환경을 제공하고 있다. 이 벽화의 소재와 수준에 관하여 여러 의견이 나올 수 있다. 즉, 상투적인 포토 리얼리즘적 기법이 극복해야 할 문제 요소이기는 하지만 일반 시민들의 시각에서 볼 때, 콘크리트 숲에서 제주의 자연을 느낄 수 있다고 본다면 그리 큰 문제는 아닐 것이다. 사실 국내의 거의 모든 아파트 벽화가 소나무, 학, 산, 달, 해 등 통속적인 소재를 사용하여 슈퍼그래픽으로 제작되었다는 점을 감안해 볼 때, 이 대형벽화는 나름대로 가치를 가지고 있으며, 더욱이 이 벽화가 관광지인 제 2 횡단도로의 길목에 위치하여 제주를 찾은 관광객들에게 따뜻한 이미지의 제주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은 또 하나의 큰 수확이 아닐 수 없다.



<그림46>

제주시 소재 화북주공아파트에는 높은 급수탑에 물결무늬의 단순화된 이미지를 표현함으로써 높은 탑이 주는 불안정함과 딱딱함을 부드럽게 만들어 주고 있다. <그림46> 이러한 벽화는 적은 예산으로 얼마든지 가능한 일이며, 그 디자인에 따라 다른 아파트와의 차별성을 만들 수 있고, 아파트의 거대한 크기로 인하여 도시의 전체적인 미관개선에 기여할 수 있다.



<그림47>

제주시 소재 월드컵아파트에는 제주의 오름을 소재로 한 야수파적인 강렬한 색채의 벽화 <그림47> 가 그려져 있다. 대다수 아파트 벽화들이 상투적인 소재와 도안적인 수준에서 머물러 있는 현실에서 볼 때 이러한 벽화는 신선한 충격이며, 앞으로의 벽화제작에 또 다른 가능성을 제시하고 있다.



〈그림48〉



〈그림49〉



제주시 아라동에 위치한 원신아파트의 벽면에는 나무와 새의 모습을 안정감 있는 구도로 표현한 벽화 〈그림48〉가 있다. 원신아파트가 한라산 자락에 위치하여 주변이 아름다운 숲으로 이루어졌다는 점을 생각할 때, 주변환경과의 조화를 꾀하고 있다고는 볼 수 있으나, 도안이 상투적인 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어 아쉽다. 좀더 제주지역에 맞는 소재의 탐구가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중문에 위치한 일류리조트와 골든비치모텔의 경우도 앞서 신제주 연동지구의 벽화처럼 제주 자연을 포토 리얼리즘적인 기법으로 표현하여 관광지라는 특색에 맞는 관광홍보적인 효과를 거두고 있다고 하겠다. 〈그림49〉



〈그림50〉

그러나 삼환, 성환, 성지 등 대다수 제주도의 아파트 벽화 〈그림50〉는 통속적인 소재로 시대에 어울리는 신선함이 모자라고 주변환경과 건물에 어울리는 색채 및 그래픽이 도입되어 있지 못한 실정이어서 제작과정상의 소극적인 태도가 엿보인다. 아파트 벽화 중에는 이렇게 형식적인 장식에 불과한 벽화가 대다수인 실정이다.

제주지역에서도 아파트가 대규모화되어 간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아파트가 갖는 대규모 형태의 나열과 배치상의 단조로움에서 벗어나 색채 및 그래픽을 도입함으로써 아파트의 식별성과 특성을 부여함과 동시에 시민과 관광객에게 아름다운 환경을 제공하는 효과에도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이러한 계획은 인간의 심리에 작용하는 색채 조절적인 측면과 제주지역의 기후 및 이미지의 명료성을 고려한 다각적인 측면에서 접근하여야 할 것이다.

최근에 세워지는 대형 아파트의 경우 육지부의 그래픽과 색채를 그대로 차용하여 제주의 독특한 정서를 찾아볼 수 없다. 벽화의 전통을 서울 등 대도시의 모습에서 찾지 말고 제주의 전통을 계승, 현대화하여 표현해 나가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하겠다. 이는 국제자유도시를 앞두고 국제적 감각과 지역적 특성이 조화된 벽화의 필요성이 절실히 요구되는 상황과 결부시켜 볼 때 의의 있는 일이라 할 수 있다.

## 6. 기타

### 1) 양어장 벽화

제주도는 관광산업의 일환으로 제주도 각 해안 지역에 해안도로 건설을 추진하였고, 지금은 거의 모든 지역에 해안도로가 건설되어 지역주민이나 관광객들에게 좋은 이미지를 주고 있다. 하지만 해안도로 곳곳에 위치한 기존 양어장들의 흉칙한 모습은 제주의 아름다운 해안경관을 훼손하고 있다. <그림51> 남제주군은 이러한 현실에 적극적



<그림51>

으로 개입하여 양어장 벽면에 벽화를 그리도록 권장함으로써, 예전의 반환경적인 이미지에서 자연친화적인 모습의 양어장 건물로 탈바꿈하고 있다.



<그림52>

남제주군 온평리에 위치한 이 곳은 ‘친환경양식 모범업체’로 선정된 곳으로 벽화 <그림52>의 아이디어와 표현이 훌륭하다. 외부로 돌출된 급수관을 나무의 모습으로 표현한 일종의 눈속임기법을 사용하고 있으며, 섬세한 묘사와 깊이 있는 원근감 표현, 제주적인 차분한 녹색의 사용으로 이 곳을 찾는 도민들과 관광객들에게 호평을 받고 있다. 이러한 벽화의 장려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충분히 실천가능한 일이며, 기대되는 파급효과는 매우 크다고 생각한다. 또한 자연적인 경관에만 의지하는 제주관광의 한계를 극복하여 또 하나의 훌륭한 볼거리를 제공할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



〈그림53〉

오조리 해안도로에 위치한 이 양식장은 딱딱하고 불안감을 주는 수직의 급수관에는 물방울 모양의 기하학적인 원을, 벽면에는 사선형의 추상적인 모습을 그려넣어 부드럽고 안정적인 모습으로 탈바꿈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그림53〉 벽화에 사용된 색상도 주변의 바다와 대지의 색상과 잘 어우러지고 있어 보는 사람에게 편안함을 제공하고 있다. 이 벽화는 비교적 적은 예산으로 그려진 것으로 벽화에 필요한 것은 많은 예산이 아니고 조형에 대한 깊은 이해와 전문적인 지식임을 보여주는 예라고 하겠다.



〈그림54〉



〈그림55〉

비슷한 모습의 무릉 해안도로에 위치한 이 양어장의 벽화 〈그림54〉는 강렬한 파이프의 색채, 전체적으로 차가운 이미지가 주변의 돌담과 대지의 느낌과 전혀 어울리지 않고 있다. 이러한 벽화는 아름다운 자연에 흠집을 내고, 해안도로의 운전자들에게 시각적 피로감을 주고 있다.

해안도로는 그 성격상 관광객의 발길이 많다는 사실에 비추어 벽화에 제주적인 이미지를 표현할 때 그 홍보효과가 클 것이다. 양어장의 위치가 바다와 가깝다는 이유로 바다를 주제로 한 슈퍼그래픽적인 벽화가 많은데, 이 경우에도 제주적인 이미지와 주변경관과의 조화를 생각하여야 할 것이다. 표선에 위치한 벽화 〈그림55〉의 경우 나름대로 제주 일출봉의 이미지를 차분한 대지의 색과 하늘색으로 표현하여 제주적인 이미지를 표현하고 있는데 반해 온평리의 벽화 〈그림56〉는 요트와 바다의 이미지를 표현하고 있으나, 주변의 가옥과 대지의 색감과 전혀 어울리지 않고 있다.





〈그림56〉

이렇듯 양어장에 벽화를 도입함으로써 이전보다는 훨씬 더 나은 환경친화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으며 그 중에는 뛰어난 벽화도 몇몇 있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여기서 한 가지 생각해봐야 할 점은 양어장들이 한 곳에 집중적으로 모여 있다는 점이다. 그렇기 때문에 각각의 벽화가 가지는 모습도 중요하지만 벽화들의 전체적인 조화와 통일성이 훨씬 더 요구된다. 현재 이 부분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단체가 각각의 양어장에 벽화를 권장한 사항이기 때문에 양어장 나름대로 자기들 목소리만 내다 보니 전체적으로는 어지럽고 산만한 느낌을 피할 수 없는 실정이다. 자치단체가 벽화를 권장할 때는 반드시 전체적인 조화를 생각하여 전문가를 통한 디자인의 제시와 함께 벽화경비를 지원하는 등 좀더 적극적인 자세로 임해야 할 것이다.

작가의 선정에 있어서도 신중을 기하여야 한다. 작품의 질은 참여작가의 수준을 넘어서지 못하는 만큼 참여작가의 선정은 중요한 과정이다. 양어장 벽화 중 일부는 적은 제작비용을 목적으로 전혀 검증되지 않은 작가에게 벽화를 제작하게 함으로써 오히려 벽화가 제작되기 전보다 못한 상황을 만들고 있는 만큼, 작가의 선정에 있어서는 신중을 기하여야 한다. 즉 우수한 공공 예술작품을 보장받기 위해 이러한 대형 벽화의 제작은 공공예술의 기술적, 예술적 경험이 있는 전문가들에 의해 이루어져야 한다.

## 2) 방파제 · 정수장 벽화

제주지역은 섬이라는 여건상 많은 수의 방파제가 있으며, 현재도 계속적으로 그 수가 많아지고 크기 또한 커지고 있다. 하지만 콘크리트로 이루어진 방파제는 색이나 형태가 조형적인 측면에서 전혀 아름답지 못하여 제주의 아름다운 해안선을 삭막하게 만드는 요인이 되고 있다. <그림57> 이러한 이유로 얼마 전부터 방파제 곳곳에 벽화가 그려지고 있으며, 또한 제주의 해안 곳곳에 위치한 정수장들도 그 특유의 길고 지루한 콘크리트 담벼락에 적극적으로 벽화를 그려서 많은 미적 효과를 얻고 있다.



<그림57>



<그림58>

제주항 입구에 위치한 300여미터나 되는 대형 방파제 벽화 <그림58, 59>는 그 역할을 훌륭히 수행하고 있다고 하겠다. 소재는 제주의 단순한 풍경이지만 그 표현방법에 있어 작가 나름의 시선으로 결코 평범하지 않은 제주를 그려내고 있다. 즉 이러한 종류의 풍경을 그린 벽화는 관광안내 책자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유명 관광지의 식상한 모습이 되기 쉬운데, 이 벽화에서는 색감이나 구도처리, 소재의 선택에서 따뜻하고 역사가 살아있는 제주의 모습을 그려내고 있는 것이다. 이 곳은 특히 제주항 여객터미널을 통하여 제주를 찾는 많은 관광객들이 처음으로 제주의 이미지를 결정지을 수 있는 중요한 장소라는 점에서 이 벽화가 가지는 존재 가치가 크다고 하겠다.



〈그림59〉



〈그림60〉

서귀포시 중문에 위치한 중문해수욕장의 방파제 벽화 〈그림60〉는 점묘라는 독특한 방식으로 삭막한 모습의 방파제를 생기 있게 만들고 있으나, 그 표현에 있어 지나치게 유아적이고 깊이가 없는 점이 아쉬움으로 남는다. 이 곳은 유명한 관광지이고 많은 관광객들이 찾는다는 점을 생각해보면 좀 더 향토적이고 깊이 있는 벽화의 도입이 시급하다고 하겠다.



〈그림61〉

이 외에 제주시에 위치한 삼양정수장과 이호정수장의 기다란 벽면에는 바다의 물고기를 소재로 한 밝은 느낌의 벽화 〈그림61〉가 그려져 있다. 이 벽화는 해안의 이미지와 잘 맞으면서 정수장의 맑은 이미지와도 잘 맞아서 좋은 효과를 거두고 있다.

방파제·정수장에 그려지는 벽화에 있어 선행되어야 할 점은 해풍에 견딜 수 있는 보존에 대한 고려와 해안을 찾는 사람들에 대한 이해, 그리고 그들의 욕구를 파악하는 것이다. 제주가 관광지라는 여건상 해안에 위치한 이 곳에는 관광객들의 발길이 잦을 것이고, 그들의 시선에 벽화의 내용을 맞출 수밖에 없다. 그렇다면 이러한 벽화는 아름다운 환경벽화의 효과와 더불어 제주의 이미지를 표현하여 제주 관광의 또 다른 볼거리를 제공하는 홍보 효과와 제주를 알리는 지식전달 매체로서의 벽화를 기대해볼 수 있다.

그러나, 현재 제주의 많은 방파제 가운데 벽화가 그려진 방파제는 극소수에 불과한 실정이며, 그 제작에도 많은 예산이 투입되지 못하여 좋은 재료는 거의 사용되지 못하는 형편이다. 그로 인해 보존의 문제가 벽화제작과 유지에 있어 코앞에 닥칠 가장 시급한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특히 방파제와 정수장은 그 거대한 크기가 바다환경에 미치는 악영향과 공적인 시설의 특성을 고려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적극적인 자세로 벽화를 지원하여야 할 것이다. 자치단체에서는 벽화제작을 단순한 환경미화의 개념이 아니라 주민들의 문화복지를 장려한다는 차원에서 보다 성실한 자세로 지원하여야 할 것이다.

### 3) 발전소 벽화

현대로 오면서 도시의 팽창과 산업시설의 증가, 인간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각종 연료의 사용 등으로 환경에 악영향을 끼치는 발전소나 연료저장소가 늘어나게 되는 것은 어쩔 수 없는 현실이다. 이러한 발전소에 벽화를 도입하는 것은 단순한 페인트 도장과는 다르게 많은 긍정적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

제주시 동부두에 위치한 LG정유 저장소 <그림62> 는 그 자체의 엄청난 크기로 시민들에게 불안감을 조성함에도 불구하고 전체를 흰색으로 도색하여 오히려 그 크기를 더 커져 보이게 하고 있으며, 주변의 바닷가와 인접한 사라봉의 자연경관을 해치는 흉물이 되고 있다. 또한 이 장소가 제주를 찾는 관광객의 발길이 잦은 곳이라는 점과 시민들의 휴식 공간인 사라봉이 인접해 있다는 사실을 생각할 때, 벽화를 이용한 이미지의 순화를 고려해 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그림62>

제주시 일도지구에 위치한 SK정유 저장소는 구형의 거대한 연료탱크에 축구공 모양의 벽화 <그림63> 를 제작함으로써 정유 저장소의 불안한 이미지에서 탈피하여 친근한 이미지로 변신하였다. 제주의 월드컵 개최에 맞추어 제작된 이 벽화는 아이디어가 뛰어나서 누구에게나 좋은 느낌을 주며 거대한 크기로 인하여 월드컵의 홍보에도 일익을 담당하고 있다. 벽화의 도입이 주는 효과가 얼마나 클 수 있는지 보여주는 예이다.



<그림63>

제주시 삼양에 위치한 한국전력의 경우 거대한 굴뚝과 저장탱크에 시원한 물방울의 이미지를 이용한 슈퍼그래픽 벽화 <그림64> 가 주변의 바다, 하늘과 잘 어울려서 발전소의 불안한 이미지를 지우고 친환경적인 모습을 보여준다.



<그림64>



<그림65>

한림에 위치한 한국전력도 삼양과 마찬가지로 비슷한 이미지를 사용하고 있는데, 이 곳은 주변이 녹색의 수풀이 많은 곳이라는 점을 감안하여 전체를 녹색의 이미지로 표현함으로써 주변의 자연과 잘 어울리는 조화로운 모습을 보이고 있다. <그림65>



<그림66>



<그림67>

화순에 위치한 화력발전소의 경우 제주도 한국전력의 경우와 비슷하게 바다와 하늘의 이미지인 흰색과 파란색의 슈퍼그래픽 벽화 <그림66, 67>로 표현하려 한 점은 인정할 수 있으나, 주변에 있는 절벽, 숲의 색상과 판이하게 다른 느낌이 연출됨으로써 이 곳에서 배출되는 흰색 매연의 느낌이 오히려 더 강해지게 만드는 반환경적인 모습이 되고 있다. 이것은 이런 단순한 슈퍼그래픽 벽화제작에 있어 환경과의 조화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나타내고 있다.

발전소에 제작되는 벽화는 굴뚝이나 연료탱크의 거대한 크기가 제주의 자연환경에 미치는 악영향과 사고의 위험, 공해 등에 대해 시민들이 느끼는 부정적인 이미지의 해소를 위한 하나의 해답이 될 수 있다. 그러나, 벽화의 제작에 있어 주변환경과의 조화가 고려되지 않는다면 또 하나의 커다란 공해가 된다는 사실을 인식하여야 할 것이다.

#### 4) 신호등 · 가로등제어기 벽화

최근 몇 년 사이에 제주에서는 급속한 자동차의 증가로 많은 도로가 확장되었고 보행자 안전의 이유로 신호등 · 가로등이 많이 생겼으며, 그 부근에는 사각모양의 제어기가 설치되었다. <그림68> 사각형의 철판으로 이루어진 제어기는 그 자체의 미관이 아름답지 못하고, 철판의 특성상 쉽게 녹이 스는 단점으로 시내한복판의 미관을 해치는 흉물이었으나 최근에는 그 위에 작은 벽화들을 제작하여 미관적 요소들을 많이 개선하고 있다.



<그림68>



<그림69>



<그림70>

제주시 광양에 위치한 제어기 벽화 <그림69> 는 일출봉과 모래사장, 유채꽃의 모습을 사실적으로 맑고 안정되게 표현하여 좋은 느낌으로 다가오며, 돌하르방을 유머러스하게 표현한 <그림70> 의 제어기도 나름대로 제주의 이미지를 밝게 만들고 있다. 작은 제어기 하나가 도시미관과 관광홍보의 효과를 충분히 해내고 있는 것이다. 이 밖에도 서귀포시 1호광장에 위치한 제어기 <그림71> 도 단순하지만 나름대로 자연적인 느낌의 도안으로 회색의 보도블럭이 주는 딱딱함을 해소하고 있으며, 어린이들을 위한 이런 벽화 <그림72, 73> 도 나름대로 시민들에게 좋은 느낌을 주고 있다.



<그림71>



<그림72>



<그림73>

그러나 야자나무 같은 전혀 향토적이지 않은 소재와 어색한 돌하르방의 모습을 그려 넣은 이러한 벽화 <그림74> 나 어설피게 그려진 제주비바리와 제주이미지와 상관없는 녹색새의 모습을 그려 넣은 제어기 <그림75> 의 경우는 오히려 관광객과 자라나는 세대들에게 잘못된 정보의 전달이라는 오점을 남기고 있기도 하다. 아무리 작은 벽화라도 그 파급효과와 영향은 엄청난 것이라는 사실을 인식하여 이러한 점들은 수정·보완되어야 할 것이다.



<그림74>



<그림75>

신호등·가로등은 대개 사람들의 왕래가 빈번한 도심 한복판에 위치하고 있음을 볼 때, 도시의 삭막한 환경을 개선할 수 있는 자연적인 소재와 상대적으로 눈높이가 낮아서 제어기를 많이 바라

보는 어린이를 위한 교육적인 소재, 제주를 찾은 관광객을 위한 홍보성 소재 등이 적합하며, 딱딱한 느낌의 보도블럭을 걷는 사람들로 하여금 시각적 지루함을 덜어 주는 역할을 하는 소재의 벽화가 바람직할 것이다.



## 5) 공사장 벽화

현대인의 주거공간이 조성되는데 필수과정인 건설현장은 우리 주변에서도 많이 찾아 볼 수 있다. 온갖 거대한 기계류의 소음과 분진, 작업중인 미완성된 건물의 모습은 도시의 미관과 주민의 생활에 많은 피해를 주지만 주거공간의 확장을 위하여 이런 피해들은 어쩔 수 없는 일이기도 하다. 특히 공사현장에 사용되는 철제담장은 값싼 페인트로 도



〈그림76〉

색되어 있고, 반복적인 사용으로 인하여 녹이 많이 슬어 보기 흉한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림76〉 하지만 이러한 철제담장에 그려진 벽화가 이 많은 단점들을 어느 정도 해소시킬 수 있는 힘을 가질 수 있다.

아래 벽화 〈그림77〉는 제주시 소재 관덕정 목관아지 공사현장에 그려진 것으로 그 소재가 ‘탐라순력도’의 모습을 확대한 것이다. 이 벽화는 회색의 철제담장이 주는 차가움을 지워주고 있으며 목관아지 공사의 내용을 시민들에게 홍보하고 있을 뿐 아니라 교육적인 효과와 함께 관광객들에게는 제주의 전통을 소개하고 있기도 하다. 이 벽화는 크기도 작고 공사장의 특성상 그 자리에 오래 보존되지는 않겠지만, 앞으로 제주에 그려질 벽화의 방향과 효용성을 제시하고 있다.



〈그림77〉



〈그림78〉

제주시 연동 신시가지 공사현장처럼 제주의 자연과 문화를 그려 넣음으로써 공사장 특유의 삭막함을 지우고 제주의 모습을 소개하는 홍보의 장이 되고 있는 곳도 있는 반면, 〈그림78〉 제주시 삼양의 공사현장처럼 오히려 벽화 〈그림79〉가 공사현장의 삭막함을 가중시키는 곳도 있는 형편이다.



〈그림79〉

지방자치단체에서 각 공사장에 벽화를 그리도록 권장한 것은 좋은 발상이나 단순히 철제담장에 벽화를 그리는 것에 그쳐서는 안 된다. 공사장이 시민들에게 주는 많은 악영향을 고려하여 그 벽화의 내용과 효용에 있어서도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다고 하겠다.

## V. 결론

현대사회에서 미술은 독자적으로 지배되어오던 미술체계나 표현방법 또는 조형 색채 등에 있어서 전통적 방법에 얽매이지 않고 미술과 사회, 미술과 환경 등 다양한 단계로 변화되어 가고 있다.

벽화는 인간생활과 가장 가까이 밀착된 미술로서 생활환경과의 어떤 영향 속에서 시작되었다. 모든 생물은 서로 상호연관하며 생존하고, 인간도 자신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환경의 영향을 받으면서 살아가고 있다. 이러한 환경 속에 인간의 행위가 여러 가지 유형·무형의 작품으로 이루어지게 되고 벽화도 그 중 하나의 소산물이라 하겠다.

벽화는 대중 속에서 존재한다. 개인이 제작한다고 하여도 벽화 자체가 이미 대중성, 공공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개인의 것이 될 수 없고, 따라서 이러한 공공적 성격을 올바르게 이해하지 않으면 벽화가 건강한 모습으로 정착될 수 없는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벽화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함께 다각적인 연구와 노력이 필요하다.

제주의 경우 이제 불과 몇 년의 역사를 지녔다할 만큼 초기단계를 크게 벗어나지는 못했지만, 관광지라는 특성으로 인하여 현재까지 많은 수의 벽화가 제작되었고 국제자유도시로 변화하는 지역적 과제로 인하여 향후 많은 수의 벽화가 제작될 전망이다. 그러나 아직까지 벽화제작에 있어서 환경미술과 공공미술, 그리고 지역적 특성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점이 많은 상황이다. 벽화를 단순한 벽장식이나 공간의 활용 차원에 머무르게 해서는 안된다. 벽화는 현대적 디자인의 집약된 모습을 보여주어야 하며 순수미술의 다양한 표출과 진솔한 참여미술이 어우러질 수 있는 종합적 환경미술이어야 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제주의 현대 벽화의 조사를 근거로 하여 앞으로 진행될 벽화의 방향성에 대해 다음과 같이 제안하고자 한다.

첫째, 벽화제작에 있어 참신한 내용이 요구된다. 제주의 거리와 관광지에 제작된 벽화의 대다수는 제주가 천혜의 자연경관을 자랑하는 국제적인 관광도시라는 사실에 기인하여 제주의 자연과 관광지를 소재로 제작되어 있다. 그러나 아무런 여과 과정 없이 자연과 관광지의 모습만을 나열하는 것은 일차적이고 즉각적인 메시지 전달은 가능할지라도 시간이 지날수록 식상해질 수밖에 없다. 따라서 향후 제작될 벽화는 보다 다양하고 참신한 내용 및 표현방식이 이뤄져야 할 것이다. 다시 말해서 작품의 내용이 그 공간을 향유할 사람들의 보편적인 정서에 부응토록 하기 위해 벽화가 위치한 지역이나 거리의 문화적 배경을 동시에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를테면 제주인들이 일상에서 자연스럽게 느낄 수 있는 형상과 특히 국제도시로서의 위상을 높일 수 있는 벽화의 정체성을 확립할 수 있는 표현방식과 내용으로 채워져야 한다는 것이다.

둘째, 벽화는 현대인의 미적 감성에 접근할 수 있어야 한다. 벽화가 공공의 장소에 위치한다는 점에서 볼 때 그 속에 설치된 벽화도 개인의 창작적 측면뿐만 아니라 공공미술이라는 시각에 맞춘 작가의 전향적인 창작 자세가 요구된다고 본다. 현대인들의 미적 감상 수준은 상품광고의 원색적이고 유혹적인 미감에 대다수가 매료되고 있음에서 볼 수 있다시피 아직까지는 그 미적 감상수준이 낮다. 따라서 계몽적이고 기념비적인 전근대적인 내용을 탈피하여 동시대적 공통의 미적 감성에 접근할 수 있는 내용 및 표현방식이 요구되어진다.

셋째, 제주의 특성을 살려야 한다. 최근에 세워지는 제주의 대형 아파트나 대형 건물의 경우 육지부의 그래픽과 색채를 그대로 차용하여 제주의 독특한 정서를 찾아볼 수 없다. 벽화의 전통을 서울 등 대도시의 모습에서 찾지 말고 제주의 관덕정 벽화, 탐라순력도의 화첩 등에서처럼 제주의 전통을 계승, 현대화하여 표현해 봄이 어떨까 한다. 이는 국제자유도시를 앞두고 국제적 감각과 지역적 특성이 조화된 벽화의 필요성이 절실히 요구되는 상황과 결부시켜 볼 때 의의 있는 일이라 할 수 있다.

넷째, 작가의 선정에 신중을 기하여야 한다. 작품의 질은 참여작가의 수준을 넘어서지 못하는 만큼 참여작가의 선정은 중요한 과정이다. 제주의 일부 자치단체는

적은 제작비용을 목적으로 전혀 검증되지 않은 작가에게 벽화를 제작하게 함으로써 오히려 벽화가 제작되기 전보다 못한 상황을 만들고 있는 만큼, 작가의 선정에 있어서는 신중을 기하여야 한다. 즉 우수한 공공 예술작품을 보장받기 위해 벽화의 제작은 공공예술의 기술적, 예술적 경험이 있는 전문가들에 의해 이루어져야 한다. 또한 기존 미술인들은 미술계에서의 지위나 경험이 ‘벽화가’로서의 기득권이나 특권이 될 수 없다는 사실을 겸손히 인정하고 주변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자세를 지녀야 할 것이다.

다섯째, 지방자치단체의 적극적인 자세가 요구된다. “벽화가 가지는 의의는 크고 숭고하나 이를 뒷받침할 자치단체의 제도적인 장치가 뒷받침하지 못한다면, 그 제작의 시작부터 흔들릴 수 밖에 없을 것이다. 현재의 조례가 공공시설물의 벽화를 제작할 경우 예술작품으로 발주할 수 없이 페인트 도장으로 묶여있고 예산 범위도 3000만원 미만의 수의계약이라는 보이지 않는 족쇄 때문에 제대로 된 벽화를 제작하기가 불가능하다.”<sup>40)</sup>자치단체에서는 벽화제작을 단순한 환경미화의 개념에서 벗어나 주민들의 문화복지를 장려한다는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지원하여야 할 것이다.

끝으로 본 연구를 통하여 나타난 제주 현대 벽화의 긍정적인 요소는 계속적으로 계승하고, 부정적 요소는 철저히 비판·보완하는 과정을 거쳐서 향후 제작될 벽화에는 기존의 벽화보다 공공미술적 측면의 부각과 아울러 환경의 질을 개선하고 제주인의 삶에 이바지할 수 있는 종합적 환경미술의 창출을 통하여 인간적인 생동감이 넘치는 새로운 문화공간으로 자리매김해 나가기를 기대해 본다.

---

40) 김유정(2001), 전계서, p.35.

## 참고문헌

### <단행본>

- 김인환(1994), 「동·서 미술의 흐름」, 미술공론사.  
장소현(1984), 「거리의 미술」, 열화당.  
박찬국 외(1995), 「현대 미술의 기초개념」, 도서출판 재원.  
최태만(1995), 「소통으로서의 미술」, 삶과 꿈.  
가와무라 기이치 편(1991), 「이집트 박물관」, 한국일보사.  
장 루이 페리에(1993), 「20세기 미술의 모험」  
김정화 역, 도서출판(주)에이피인터네셔널.  
존 피그 외(1984), 「예술 행정」, 현암사.  
허버트 리드(1981), 「미술의 역사」, 김윤수 역, 범조사.  
A. 하우스저(1993), 「문학과 예술의 사회사-고대·중세 편」  
백낙청 역, 창작과 비평.

### <논문>

- 김옥미(1991), “도시벽화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경희대학교 교육대학원.  
김재관(1988), “벽화제작의 다양한 기법과 응용에 관한 연구”  
청예론집, 청주대학교.  
김지희(2000), “한국 현대 벽화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고려대 교육대학원.  
류인옥(2000), “Joan Miro의 벽화 연구”  
석사학위논문, 영남대 교육대학원.  
송승희(1999), “환경미술로서의 도시 벽화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제주대학교 교육대학원.  
이태호(1980), “멕시코 벽화 운동 연구”  
석사학위논문, 홍익대학교 대학원.  
진영선(1998), “동과 서의 감성과 표현력의 만남”, 「조형논총」, 제 8집.

<기타>

- 김유정(2001), “도시벽화 ‘콘크리트여! 안녕’ ”  
「문화도시 문화복지」 112, 한국문화정책개발원.
- 조은정 외(1997), “특집 1%법, 도시 환경 조형물”  
「가나아트」 9월호.
- 김윤수(1983), “환경·벽화·주민”, 「계간미술」 여름호.
- 전호태(1994), “집안 고구려 고분벽화 개관”  
「고구려 특별대전」 전시도록, KBS 한국방송공사.
- 김영방(1988), “멕시코 벽화운동”, 「계간미술」 가을호.
- 두산동아(1996), 「두산세계대백과사전」, 두산동아.
- 박경훈, 개인면담, 제주도 제주시 탐라벽화·조형연구소, 2002년 2월 21일.

<Abstract>

## **The Study On Modern Mural Painting of Jeju**

Park Chang-Byum

Art Education Major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Jeju National University

supervised by Professor Kim Yong-Hwan

The modern mural painting that is completely different from the modeling experiment that once enjoyed popularity is the tendency of the present time. It was made by the general public and planted its roots so deeply in the public that may have strong power.

The first movement of the modern mural painting was started from Mexico Revolution. It was mainly going on in America in 60's through 1930's New Deal paintings. However, it has spreaded out all over the world.

In the light of city space, the modern mural painting was produced to improve the sentimental stability of citizen and the beauty of city environment. It became one of the important fields of the city environment designing.

The producers of mural works are various from a professional artist to a child and a citizen. Their works come into being and disappear as if the flowers at the corner of a street are once in bloom and fall off. Therefore, the mural painting may not take hospitable treatment in Arts history. However, without thinking about the stereotype of Arts, we'd better to estimate these murals in the right way that they connect Arts with society, and Arts with the public.

---

\* A Thesis submitted to the Committee of the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Jeju National University in partial fulfillment of the requirements for the degree of Master of Education in February, 2002.



The mural painting exists in the public. Even if a person makes it, it can't be one's property. That's why the mural painting itself has the popularity. In the other words, when we understand the popularity, the mural painting can be well settled down in our society. Therefore, we need to understand and study the mural paintings with the various views.

Jeju's murals have a short history and is just in the step of starting. However, Jeju is a tourist resort and so a lot of paintings have been made and will be produced in the future in Jeju. So far, there are the lack of understanding the environment Arts, the public Arts and the regional characteristics. The murals should be estimated more than the thing for the simple wall decorations or the practical uses of space. These paintings need not only to show intensive appearance of modern designing but also to be the synthetic environment Arts. As a result, the mural paintings can help for the public to express the pure Arts and take part in Arts.

In this thesis, we will consider the meanings and significance of modern mural paintings and research the present situation of mural paintings in Jeju. In addition, we will also try to find a solution to the development of modern mural paintings. It would be good if this thesis help the development of the mural paintings in the future.